10일 Market Index
코스피 5239.13 (+220.28)
코스닥 667.61 (+28.64)
금리(국고채 3년) 3.633 (-0.006)
환율(원-달러) 1337.5 (-9.6)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하나금융그룹

"세금신고에 전화까지… 비서가 생겼어요"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 **❶ 필요한 일 먼저 제안**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심심이와 시리처럼 대화하고 명령에 답하는 서비스를 거쳐, 이용자가 맡긴 일을 여러 웹과 앱을 넘나들며 이어가는 에이전트(비서)로 진화하고 있다. 일이 바로 끝나지 않아도 진행 흐름을 따라가며 작업의 다음 단계를 돕고, 먼저 필요한 일을 제안하기도 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AI 에이전트의 진화와 활용 사례, 확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2002년 등장한 '심심이'는 메신저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챗봇이었고, 애플이 2011년 공개한 '시리'는 음성으로 질문하고 명령하는 개인 비서였다. 둘 다 당시의 AI 서비스였지만, 이용자의 말에 반응해 대화하거나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최근 AI 에이전트는 맡긴 일이 바로 끝나지 않더라도 진행 상황을 이어가고, 필요한 때 이용자에게 승인이나 피드백을 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연결된 일정이나 계정 등 데이터를 살펴 먼저 필요한 일을 제안하기도 한다.

개인 AI에이전트 앱 '피클' 네이버·홈택스 등과 연결 앱 닫아도 맡긴 일 계속 처리

빅테크는 AI 에이전트를 개인용·상시형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xAI는 지난 8월 여러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나눠 병렬로 처리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록봇'을, 오픈AI는 지난 9월 상시형 에이전트 '닷츠'를 공개했다. 닷츠는 연결된 앱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정보를 살펴 필요한 일을 찾는다. 메타의 개인 에이전트 '뮤즈'는 쇼핑과 일정·메일·구독관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내세웠다.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전체 순위에서 뮤즈는 지난 9일 기준 미국 2위·캐나다 1위에 올랐다. 앤스로픽은 지난달 21일 '클로드 듀엣'을 공개하고 미국의 프로·맥스·울트라 요금제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뮤즈와 클로드 듀엣은 국내에 정식 출시 되지 않았다. 다만 뮤즈의 경우, 백도어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그 외에도 '큐(CUE)'와 '인스팅트'가 있다. 큐는 에이전트마다 전화번호·이메일·컴퓨터 등을 부여하고 여러 에이전트의 협업을 지원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인스팅트는 문자나 전화로 요청하면 일상 업무를 돕는 개인용 AI 에이전트다.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서비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피클'은 개인 AI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표방하며 정부24, 홈택스 등 국내 특화된 앱·웹 등의 서비스 연결과 외부 통화도 지원한다. 부이코리아의 '부이(VOOY)'는 메신저에서 취향과 맥락을 반영해 검색·비교·예약을 돕는다. '말랑AI'는 이용자의 음성 요청을 받아 앱 안의 화면을 읽고 버튼을 누른다. '마크헙'은 AI 에이전트와 팀 업무에 특화된 메신저 서비스다. 〈2면에 계속〉

/김보민 기자 kbm@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성료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엔비디아 시총 258조 증발… 서학개미 '비명'

젠슨 황 스캔들에 주가 급락
韓 투자자 엔비디아 보관액 20.5조로 테슬라 이어 2위
삼전닉스 영향은 '제한적'

"오랜만에 계좌를 열어 봤는데 디렉시온 반도체 3배 레버리지(SOXL) 왜 -15%인가요?"

"며칠 새 소형차 1대 값 날렸습니다."

"믿을 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주식뿐"이라며 엔비디아와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인 서학개미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다. 지난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가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에 대한 이사회 조사 여파로 나흘로 급락하며 하루 새 시가총액 1921억달러(약 258조원)가 증발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3% 내린 178.67달러에 마감했다. 주가는 장중 한때 8.8% 급락하기도 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엔비디아 보관액은 약 20조5000억원으로 테슬라에 이어 2위다. 보관액 상위 12개 중 VOO·QQQ 등 ETF 5개도 엔비디아 주가의 영향을 받는다. 직접 보유에 ETF를 통한 간접 투자까지 겹친 만큼 엔비디아의 나 홀로 하락에 서학개미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황 CEO는 혼외 관계를 인정했으며, 이사회는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주주들은 회사와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의 관계 및 관련 위험을 알리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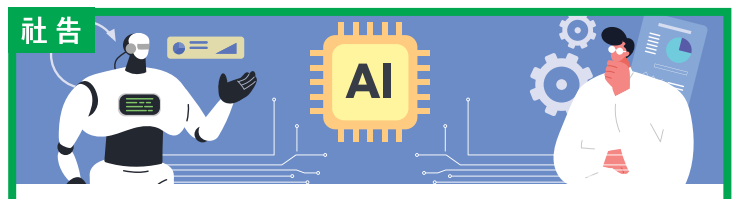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엔비디아 CEO 스캔들과 이사회 조사로 인공지능(AI) 대장주가 홀로 밀렸지만, AMD·브로드컴과 반도체 장비주로 매수세가 번지며 (미국 증시) 4대 지수가 일제히 2% 넘게 반등했다"며 "중·소형주까지 가세하며 랠리의 저변도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날 주가는 각각 4.53%, 6.69% 급등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컴퓨팅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미국 내에 건설하지 않는다면) 결국 데이터센터는 자연스럽게 미국 밖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절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판대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 검토…심의 착수

온라인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분야 각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으로 큰 관심을 모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 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여러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양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기업결합 허용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은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건에 대해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심인 측이 제출한 시정방안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6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됐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구체적인 주식 교환 방식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결합의 영향을 받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총 10개의 관련 시장을 획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국내 온라인 검색포털 시장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 ▲국내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더해, 향후 형성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이 포함됐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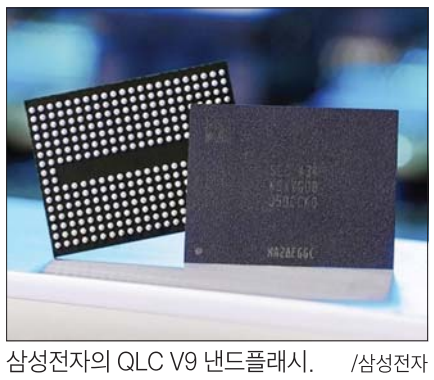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서 의결 /사진 뉴시스
▲여야, 예결위서 '호남 반도체' 공방…野 "졸속 추진" 與 "속도 내야"
▲조현, G7 계기 프랑스·사우디 외교장관 만나 우크라·호르무즈 정세 논의
▲李가 예고한 부동산범죄 3차 단속 시작…집값 담합·허위거래 정조준
▲사람은 쉬어도 탐지는 계속된다…"AI 도입후 성착취물 처리 10배↑"
▲15일부터 전국 우체국 2000여곳서 '한파 쉼터' 운영

中 수요 둔화·美 규제… 한달새 낸드값 15% '뚝' 업황 우려

中서 웨이퍼 현물 일주일 새 9.19%↓
일부 범용낸드 고정거래가격 보합
AI 서버용 낸드는 수요확대 이어져
삼성·SK 수익성 영향 제한적 전망


삼성전자의 QLC V9 낸드플래시.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현물가격이 한 달 새 15% 이상 하락하면서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수요 둔화와 미국의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용 SSD 수요에 힘입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지난 6일 공개한 메모리 반도체 현물시장 자료에서 낸드 TLC 512Gb 현물가격은 16.2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16.7%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TLC 1Tb 가격도 15.3% 떨어진 25.9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2주간 하락률은 각각 13.1%, 12.8%다.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부진이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 10월 28일 일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판매 부진으로 광군절을 앞두고 할인 판매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26일 기준 512Gb TLC 웨이퍼 평균 현물가격은 일주일 새 9.19% 하락한 16.883달러를 기록했다.

일부 범용 낸드 제품의 고정거래가격도 상승세가 멈췄다.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0월 메모리 카드·USB용 128Gb MLC 낸드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30.61달러로 지난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5년 1월부터 이어진 21개월간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도 지난 7월 4.5%에서 지난 8월 1.3%, 지난 9월 0.4%로 낮아졌다.

반면 AI 서버용 낸드 시장에서는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낸드 비트 출하량에서 기업용 SSD가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집계됐다. 지난 2025년 2분기 26%에서 2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소비자용 낸드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기업용 제품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D램 생산을 우선하면서 낸드에서는 공정 전환과 제품 구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낸드 출하량 점유율은 25%로 지난 2024년 2분기 32%에서 하락했지만 세계 1위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을 중심으로 기업용 SSD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솔리다임의 낸드 비트 출하량은 전 분기보다 40%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 생산 비중을 높이고 고성능·대용량 기업용 SSD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용 낸드 수요의 변수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꼽힌다.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규 시설의 인허가와 착공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와 중국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메모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면 기업용 SSD 수요가 줄어 낸드플래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어지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AI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낸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객사들과 장기 공급계약도 체결한 만큼 향후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당분간 양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대만 TSMC, 10월 매출 25조… 전년비 60% 급증

누적매출 184조, 전년비 43% 상승
3분기 고성능컴퓨팅 매출 22%↑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가 10월 매출 25조원에 육박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매출을 기록했다.

TSMC는 10월 연결 매출이 5868억 9000만 대만달러(약 24조390억원)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7%, 전월보다 14.7%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매출은 약 4조 4856억 대만달러(약 183조73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43.3% 늘었다. 작년 연간 매출을 웃도는 규모다.

앞서 공개한 3분기 실적에서는 인공지능(AI) 가속기 등을 포함한 고성능컴퓨팅(HPC) 매출이 전분기보다 22% 늘어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했다.

TSMC는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첨단 공정 수요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매출 전망치를 523억~543억달러(약 70조1000억~72조8000억원)로 제시했다.

3분기 웨이퍼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3나노 공정이었다. 2나노 공정 비중도 2분기 3%에서 3분기 8%로 높아졌다. TSMC는 지난해 4분기 양산에 들어간 2나노 공정의 생산량을 대만 신주와 가오슝에서 늘리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TSMC 고객사인 AMD도 AI 가속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97% 늘었다고 밝혔다. AMD는 7나노미터(nm) 이하 공정을 적용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용 웨이퍼를 모두 TSMC에 위탁 생산한다.

이같은 글로벌 AI 설비 투자 확대는 국내 반도체 수출도 끌어올리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1면 '세금신고·문의전화…'서 계속

기업·기관 재직자 17% 업무에 에이전트 활용

부이, 큐, 인스팅트는 초대제로 베타 운영되고 있다. 초대제 서비스가 늘어나며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대장 링크를 구하고 공유하는 소통도 늘어나고 있다.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하는 길도 다양해지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지난 9일 K-엑사원 2.5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무료로 공개했다. 오픈소스 에이전트 도구인 헤르메스와 오픈코드에 모델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깃허브의 랭그래프·크루AI·폰 하네스·K-스킬 같은 도구를 활용해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다.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 등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도구와 에이전트 생성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개발 진입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에이전트들을 하나의 채팅방에 초대해 멀티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용 확산은 아직 초기 단계다. EY한영이 지난 5월 발표한 조사에서 국내 소비자 1000여 명 중 86%는 최근 6개월 안에 AI를 사용했지만, 자율형 AI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였다. 삼성SDS가 지난 8월 공개한 조사에선 국내 기업·공공기관 재직자 1750명 중 17%가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활용한다고 답했다. 삼성SDS 조사에서 에이전트 이용 우려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사내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52%)이었다. 에이전트가 더 많은 일을 맡을수록 어떤 정보와 권한을 제공하고, 사람이 언제 개입할지, 문제가 발생할 때 구제 방법과 책임 소재가 과제로 남는다. /김보민 기자 kbm@



"반도체 호황에 내년 경제 3.8% 성장"… 자영업·건설업 부진

금융연구원, 2027 경제 전망

수출 호조·설비투자 확대 성장 견인
AI 투자 확대에 세계경제 반등 기대
자영업 부진·건설투자 회복은 지연
물가·금리 부담에 경기 회복 불균형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김영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전망부장, 임홍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세계경제는 거듭된 충격에도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혁신이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과 통상 마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주요국의 재정악화 취약성과 높은 장기금리, AI 투자에 대한 기대와 실제와의 괴리가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KIF)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 보호무역주의와 에너지·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다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 금융 전망을 진단·분석하고, 금융업권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항용 원장은 "특정 산업과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앞으로도 성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물가와 금융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업권도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27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기반해 주요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원·달러 환율과 금리, 수출 등 한국 경제의 전망을 제시했다.

김현태 실장은 "2027년의 세계경제는 전쟁과 금리 상승 등 하방요인에도 에너지 공급망 재구축과 AI 관련 투자를 바탕으로 2026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중국은 주로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관련한 투자가, 유로지역은 에너지 가격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본은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와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해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정부도 반도체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분을 재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3.8%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별 전망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에도 자영업 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건설업권의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원재료비와 임차료 등 영업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새로운 비용 요인도 더해지면서 자영업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개인사업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정된 내수시장에서의 자영업자 간 경쟁이 금융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도 건설투자 회복세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등 건설공사비 급등이 공사 진행의 지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설비투자는 AI 관련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도 세계경제는 AI 관련 투자와 공급차질 완화에 반등하겠지만, 국가별 회복속도는 비대칭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AI 관련 투자가 세계경기를 지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변화와 금융여건의 변화가 글로벌 성장동력의 지속성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점차 내수로 파급되는 가운데서도 성장의 수혜와 물가·금리 부담이 업종과 가계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견조한 성장세와 취약부문의 부진이 공존하는 가운데 물가압력이 지속되는 만큼,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정책운용의 어려움이 커진 국면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美 정치 지형 바뀌어도 관세 압박 여전"… 대미 통상전략 새판 짜야

대한상의, 통상 전략 재정비 촉구

관세 협상·대미 투자 전략 점검
美 의회·주정부 소통 채널 확대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편의점 앞 가판대에 전날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대승했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진열돼 있다.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 지형이 재편됐지만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투자, 입법이 맞물려 움직이는 만큼 단계별 관세 협상과 투자 우선순위 재점검, 의회·주정부와의 소통 확대 등 대미 통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관세·투자·입법을 별개 현안이 아닌 서로 맞물린 3대 변수로 지목하고 정부와 기업이 대미 통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3대 변수 가운데 관세 분야에서는 301조와 232조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한 채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실익 중심의 접근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는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을 예시 목록에 올렸다. 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설비의 기여를 근거로 의견을 내고 협상 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 단계에서는 발효일과 기존 관세 중복 부과 여부 등 통관지침을 세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32조에서도 미국 정부는 최근 로봇·산업기계, 풍력터빈 등에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180일의 협상 기간을 두고 미국 내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관세율보다 수출 비중과 대미 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품목별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예외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서두르는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현지 고용과 공급망 기여도 등 투자 성과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은 외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한국의 3500억달러(약 470조원) 투자 약정도 언급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의회의 검증망이 촘촘해지는 만큼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 강점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참여 기회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한상의는 상원 토론 종결과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요건을 고려할 때 실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조달 기준 변화 등이 한국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수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의 대미 소통 채널을 행정부 중심에서 입법을 주도하는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로 넓히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6년 만에 주지사 과반을 차지한 만큼 데이터센터·생산시설 인허가 권한을 쥔 주정부와 지역사회로도 협의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젠슨 황 스파이 의혹 파장"… AI 반도체 공급·투자 차질 우려

황 CEO 중심 경영체계 리스크 부각
GPU 공급·데이터센터 투자 변수
국내 기업 AI 사업에도 부담 우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중국 스파이 연계 의혹이 경영 불확실성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국내 기업들의 AI 사업에도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10일 엔비디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지난8일(현지시간)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독립조사에 착수했다. 황 CEO는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의 혼외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사회는 다만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황 CEO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그가 중국 정보기관에 첨단 반도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미 하원도 황 CEO에게 오는 18일 비공개 설명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실제 기술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젠슨 황에 집중된 경영체계… 美 대중국 AI 반도체 규제 변수

이번 사태로 황 CEO에게 경영 의사결정이 집중된 엔비디아의 조직 구조도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60명 이상의 임원이 황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개된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도 없다.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과 글로벌 고객사 협력에서 황 CEO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엔비디아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AI 업계의 GPU 공급과 인프라 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엔비디아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는 동시에 AI 클라우드 기업과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왔다.

올해 초에는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CoreWeave)에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추가 투자하며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을 강화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과 AI 인프라 투자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은행과 투자자들이 AI 인프라 기업의 현금흐름과 계약 조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차입 의존도가 높은 클라우드 기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금융권의 심사 강화는 이번 스캔들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까지 황 CEO 의혹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취소되거나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변수다. 업계에 따르면 미 의회는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AI 오버워치법'과 반도체의 해외 이동을 추적하는 '칩 보안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조감도. /기후부



지난달 15일에 진행된 '2026 솔루션 아카데미'에서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한국사업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⑮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태양광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산업시설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에 필요한 셀·모듈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갖춘 한화솔루션의 수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태양광 투자 확대를 국내 제조업체의 공급 증가로 연결하려면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큐셀 진천공장 전경. /한화큐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5월 8일 국산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충북 진천 한화 큐셀을 방문해 태양광 셀·모듈 라인을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예산처


태양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내 전력수요 급증에 태양광 뜬다
국산 셀·모듈 앞세워 공급 '분주'

◆ 태양광 추가 확충 필요…호남 계통 접속 여건 개선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영리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를 토대로 호남 반도체 팹 4기가 2031년 모두 가동할 경우 전력수요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함께 충족하려면 전국 태양광 설비 기준 시나리오보다 12~19GW(기가와트)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53% 감축경로에서는 태양광 12GW와 저장장치 4.6GW, 61% 감축경로에서는 태양광 19GW와 저장장치 6.3GW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저장장치는 정격출력으로 6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전제로 했다.

추가 태양광을 반영한 전국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108.4~115.4GW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1년 보급 궤적 약 113GW와 비슷한 수준이다. 넥스트는 호남 반도체 팹이 정부 일정대로 가동되려면 송전망 보강과 재생에너지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이행은 팹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호남에서는 태양광·풍력 설비를 2025년 말 15.9GW에서 2031년 31.7GW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증가분 15.8GW 가운데 계통 접속 대기 물량은 3.7GW다. 나머지 약 12GW는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존 전력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접속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에는 태양광 발전 출력이 전력망 수용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면 출력을 제어하는 조건으로 접속을 확대하는 유연접속 제도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별도의 전력망 건설 없이 호남에서 태양광 2.6GW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접속 확대도 추진한다.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해 전력망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전국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배전망 ESS를 통해 태양광 3GW, 변전소 ESS를 통해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할 방침이다.

2031년 호남 반도체 팹 가동 때 온실가스 감축경로 충족하려면 태양광 설비 12~19GW 늘려야
기존 전력망·ESS 활용 추진도

한화큐셀, 해남 태양광발전사업 셀·모듈 공급… 약 64만장 설치
전력공급·가상발전소 사업 확대

중국산 제품 비중 69.3% 달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으로 지원

접속 여력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실행계획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가 계획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반영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해남에 국산 셀·모듈 공급…산업용 전력거래로 사업 확대

한화솔루션은 대형 태양광 사업에 관련 제품을 공급한다. 한화솔루션에서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큐셀부문(한화큐셀)은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전남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에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한 셀·모듈을 공급할 예정이다. 발전단지에는 모듈 약 64만 장이 설치된다.

지난 8월 착공한 해남 사업은 일반 태양광 390MW(메가와트)와 영농형 태양광 10MW 등 총 400MW 규모로, 2028년 8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상 연간 발전량을 529GWh(기가와트시)로 제시했다. 공급 대상으로는 SK하이닉스와 솔라시도 AI 국가컴퓨팅센터 등을 꼽았다.

한화큐셀은 진천에 연간 셀 5.3GW, 모듈 2.8GW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셀·모듈 제조·판매뿐 아니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기업에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세아베스틸과 20년 장기 PPA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코스맥스와도 계약을 맺었다. 코스맥스에는 화성·평택공장 등 국내 주요 생산거점 4곳에 연간 약 10.4GWh의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화큐셀은 기업 대상 전력 공급과 함께 분산된 발전자원을 모아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5일 열린 '2026 솔루션 아카데미'에서는 모듈 판매로 구축한 발전사업자·시공사 거래망을 활용해 PPA·VPP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 중국산 강세 속 국산 공급 확대 과제…생산 지원 실효성 관건

태양광 시장이 커지더라도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아 국내 제조업체의 수혜는 제한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기준 태양광 모듈 보급량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69.3%에 달했다. 국산은 30.7%에 그쳤다.

정부는 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 지원과 차세대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입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대상 제품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이달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는 태양광 핵심 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과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지원 등을 담았다.

업계에서는 생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세액공제액을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초기 투자와 운영비 부담이 큰 태양광 제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려 납부할 세금이 적으면 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공제액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생산·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AI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망 확충에 따라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기업에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은 수요 확대가 국내 기업의 수혜로 이어지려면 저가 중국산에 대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 ~ 0.45%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 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6-15805-1호 (2026.10.29~2027.10.28)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5479호 (2026.10.30~2027.10.29)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자산관리 전문은행 신한은행

100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여야, 추진속도 놓고 격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
민주당 "2030년 반도체 생산 목표"
국민의힘 "절차 무시한 속도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10일 맞붙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업인 만큼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을 속도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중요성만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열린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두고 "지난 1일부터 예비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사 설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말했다.

조 의원은 "심지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무안군 주민 찬반 투표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에선 2030년에 반도체 양산이 가능할지, 이러다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정관 장관은 "주민께선 착공하고 땅을 파는 것이 가시적인 것으로 보겠지만, 인프라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용수를 어떻게 하고 기업들은 팹(반도체 생산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는 내용이 부지런히 수면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들이 이번 달 안에 대충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일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2028년부터 2029년까지 팹이 건설이 되고 2030년 상반기 중엔 양산이 들어가는 계획엔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첫 팹은 2030년에 첫 양산이 시작되고 그 계획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최근 들어서 기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전혀 없고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30년에 반도체 양산이 목표다. 저는 사실 전당대회용인 줄 알았다"며 "정부는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하나. 지금 주식시장 요동치는 게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메모리 기술 개발 소식 하나에 삼성전자 주식이 곤두박질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믿고 확신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올인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이 총 100조원에 육박한다면서,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안 되는 사업은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라는 것을 해야 한다"며 "광주 군공항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고, 법상 후보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하려면 주변 지역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주민 투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유치 신청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 낸다

적용 범위·구체적 평가 기준 이견
다음 의총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논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현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증여·상속세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지배주주 등이 낮은 주가 또는 저평가 상태를 방치하거나 이를 활용할 유인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간 주가 평균으로 평가해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8월 개편안에서 지난 8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가 업종별 하위권에 머무른 기업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적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활발한다.

이훈기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를 막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액에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실제로 보유한 순자산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자는 취지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 건에 대해선 여야의 정책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시장 참여자가 가진 문제 의식을 잘 알고 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이 여기까지 온 만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지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양수도될 때, 새로운 인수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해 일반주주에게도 지분 매각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안의 정우 '전체 지분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한 것이 반발을 불러왔다.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에게 지분을 먼저 사버리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갈 공개매수 물량은 '10%p(포인트)+1주'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총에서 관련 내용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불발'

이르면 17일 공포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 공포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의 권한과 임명 방식, 법무부 장관의 인선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심의가 미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총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특검법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사권 부여 문제와 특검 임명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상황에서 파견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후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불법 알박기' 전국 조사 지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 등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방해하는 '알박기' 등의 행위를 지적하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도, 어떤 번영도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라며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처하고, 온라인 스캠·마약·불법사금융·가짜뉴스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다수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며 "그중에 이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종부세 완화 놓고 진보 정당·시민단체 반발

"강남·마용성 부자 감세"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은 10일 기본공제 상향의 혜택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에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부자 감세 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의원실 분석 결과는 이번 감세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혜택은 강남에 쏠린다.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은 최소 약 5만7000호 중 71%가 강남구에, 87%가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21억원 이상 주택 85%도 강남3구에 있다"며 "강남3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를 한다고 그 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나"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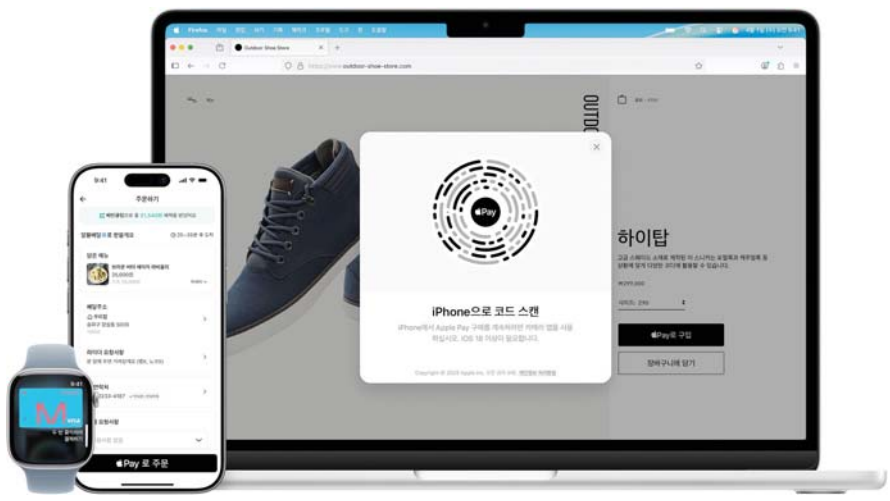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카카오·토스, 애플페이 추진… 카드사, 수수료 등 셈법 복잡

카카오뱅크, 이르면 이달 서비스
토스뱅크, 금감원 약관심사 마쳐

카드사 결제 수수료율 0.40% 중
애플 측에 0.15%수준 지급 부담
삼성페이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애플페이 연동 관련 안내 이미지. /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연내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하면서 카드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애플페이 확산에 따른 경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수수료 부담과 기존 삼성페이와의 이해관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연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이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토스뱅크는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도입 관련 약관 심사를 마쳤으며, 카카오뱅크는 현재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다.

애플페이는 애플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에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결제를 지원한다.

현재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현대카드 뿐이다. 현대카드는 지난 2023년 업계 처음으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 지금까지 독점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타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후발주자로 거론돼 왔으나 아직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애플페이 도입이 본격화되면 카드사의 경쟁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의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만 해도 지난 1년간 170만 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됐다. 애플페이 도입으로 결제 편의성이 강화되면 이용 고객 수는 더 확대될 수 있다.

해외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고객군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애플페이의 올해 초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89개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일본에서는 200곳, 중국은 100곳 이상의 금융사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젊은 여행객들이 트래블카드 대신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카드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이 여전한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현재 카드사가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0.40%다. 반면 애플페이 결제 시 애플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 40원 중 15원을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 브랜드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승인·매입·정산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더하면 카드사의 수익성 부담은 더 커진다. 카드사들과 삼성페이와의 이해관계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애플페이가 확산하면 삼성페이가 기존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애플페이 수수료 빼고, 기존 프로세싱 비용 등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관건은 협상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애플페이 도입이 실제 서비스 출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카드도 금융감독원의 애플페이 도입 관련 약관 심사를 마쳤으나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애플이 요구하는 비밀유지계약(NDA)도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령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가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비스 출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시를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은행연합회, 다음주께 차기회장 후보 공개

조용병 회장 임기, 오는 30일까지
신임회장, 내달 1일부터 3년 근무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 윤종원 전 IBK 기업은행장 /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가 10일 첫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착수한다. 조용병 현 회장의 임기 만료를 20일 앞두고 인선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금융권과 관료 출신 인사들의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첫 회추위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과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로, 신임 회장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은행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이번 회추위는 당초 예상보다 늦게 출범했다. 지난달 말 회추위 구성이 예상됐으나 정기이사회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회추위에는 조 회장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하는 11개 회원은행 대표 등 총 12명이 참여한다. 각 위원이 1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면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하고, 사원총회에서 선임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잠정 후보군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에는 첫 회추위 개최 6일 만에 후보군을 확정했고, 2023년에는 회추위 구성 11일 만에 잠정 후보 6명을 발표했다. 올해도 이달 중·하순 최종 후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로는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민간 금융권 출신인 윤종규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KB금융을 이끌며 보험·증권사 인수 등을 통해 비은행 사업을 확대했다. 2023년 은행연합회장 선임 당시에도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고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수락 여부가 관심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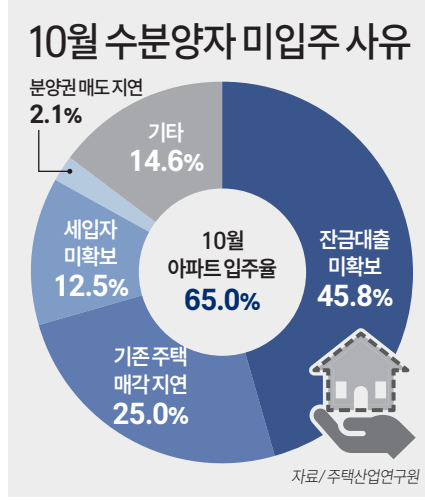
박종복 전 행장은 2015년부터 약 10년간 SC제일은행을 이끌었다. 외국계 은행 경영 경험과 은행연합회 이사회 참여 이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물망에 올랐다. 윤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기업은행장을 역임했다. 은 전 위원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과 금융위원장 등을 지내며 국제금융과 금융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점에서 실제 추천과 수락 여부는 불투명하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관리와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회원은행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직전 김광수 회장은 관료 출신, 현 조용병 회장은 민간 금융권 출신이다. 차기 회장 역시 양측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회추위가 어떤 인물을 최종 후보로 낙점할지 주목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아파트 미입주 사유 1위 '잔금대출 미확보'



주택산업연구원, 10월 입주율 65%
수도권 입주율 78%→81%로 상승

지난달 입주 기한이 끝난 전국 아파트의 미입주 사유 가운데 절반가량(45.8%)은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0%로 9월보다 3.2%포인트(p) 떨어졌다. 입주율은 해당 월에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단지에서 분양계약을 맺은 가구 가운데 입주와 잔금 납부를 마친 가구의 비율이다. 미분양 가구는 집계에서 제외한다.

미입주 사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25.0%), 세입자 미확보(12.5%), 분양권 매도 지연(2.1%)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8%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높은 대출금리와 잔금대출 확보의 어려움이 입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입주율이 떨어진 가운데 수도권은 79.8%에서 81.2%로 1.4%p 올랐다. 서울은 84.8%에서 87.6%로, 인천·경기권은 77.3%에서 78.1%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수도권 전세 매물이 부족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봤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초보다 약 30% 늘고 매매가격 상승 폭도 둔화한 가운데,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월 큰 폭으로 올랐던 입주 전망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

카카오뱅크,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 오픈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답례품

카카오뱅크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제휴사 웰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 상당을 합쳐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도 4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 '전체' 탭의 '특산품 받고 연말정산 챙기기' 메뉴에서 전국 지자체별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면 카카오뱅크의 '세금·공과금 납부' 서비스와 연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케이뱅크, 보금자리론 이용시 25만원 지원

HF 정책금융 고객 이벤트 진행

케이뱅크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정책금융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에게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정책대출 이용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케이뱅크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에 맞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도 배우자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배우자를 신청자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택가격 등 다른 대출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서류 제출부터 약정,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사람이 가르치면 로봇이 용접”… 54년 조선 노하우에 AI 입다

르포
HD현대 울산조선소

작업자 1명이 용접로봇 4대 관리
용접 생산성 3배 이상 향상 성과
러그 생산라인 24시간 무인 가동
中 자동화 우위에 피지컬 AI로 대응
비정형 작업 넘어 자율제조 가속



HD현대중공업 용접로봇. /HD현대

중국 조선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앞세워 54년간 축적한 조선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제조 혁신 현장을 공개했다. 개별 공정 자동화를 넘어 24시간 무인 생산과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상범 HD현대중공업 상무는 지난 5일 울산 조선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화율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확실히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신규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기 유리한 반면 국내 조선업은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동화를 추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피지컬 AI와 축적된 작업자의 노하우를 결합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작업자 1명이 로봇 4대 관리… 용접 생산성 3배 ‘껑충’

울산 조선소 판넬공장에서는 작업자의 용접 노하우를 로봇 자동화에 접목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자가 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용접 위치와 조건을 설정하면 로봇이 이를 반복 수행하는 방식이다. 현장에는 크레인형 용접로봇 총 12대가 운영 중이었다.

작업자는 3차원(3D) 설계 모델을 불러와 실제 작업물과 위치를 맞추고 용접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한다. 이후 로봇이 설정된 조건에 따라 상부가 개방된 블록 내부 깊은 곳까지 용접을 수행한다. 작업자 1명이 로봇 4대를 관리하며, 박종진 HD현대중공업 자동화혁신부 책임매니저에 따르면 판넬슬릿 용접로봇은 기존 수동 및 캐리지 용접 대비 3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둔다.

박종진 책임매니저는 현장에서 “작업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조건에서 용접을 반복할 수 있어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며 “품질 편차와 재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인 진입이 어려운 구역에는 작업자가 직접 이동시키는 협동로봇이 투입된다. 작업자 1명이 약 2대를 관리하며, 협동로봇을 적용한 용접 공정은 기존 수동 및 캐리지 용접 대비 생산성이 약 40% 향상됐다. 소조립 단계에서는 주간에 로봇을 설정하고 야간에는 무인 또는 최소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대조립과 곡블록 용접은 아직 반자동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러그 24시간 무인 생산… 피지컬 AI로 ‘비정형 작업’ 넘는다

HD현대중공업은 용접을 넘어 일부 공정의 24시간 무인 생산체계도 구축했다.

선박 블록을 들어 올리는 임시 고리인 러그(lug) 제조 공정은 절단·조립·용접이 통합된 24시간 무인 자율생산라인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다수의 인력을 투입해 연간 약 1800톤을 생산했지만, 무인화로 해당 공정에서 연간 약 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중형선 사업부에서는 물류 로봇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은 자동차와 달리 블록의 크기와 형상이 제각각이고 작업자와 장비가 이동해야 하는 비정형 작업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AI가 작업 조건을 판단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상범 상무는 비정형 작업 자동화와 관련해 올해 말 첫 번째 모델을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HD현대중공업은 생산 현장의 각종 관리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향후 개별 설비와 생산정보를 연결해 조선소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자율제조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기사는 (재)바다의품과 (사)한국해양기자협회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울산=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전력망 안정화 설비 시장 경쟁 본격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설비 수요 증가
LS, 고속 충·방전 기술 개발 추진
효성, 2027년 상용화·해외 진출



효성중공업이 신영주 변전소에 설치한 스태콤. /효성중공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고도화로 전압·주파수 변동에 대응하는 전력망 안정화 설비 수요가 커지고 있다. LS와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은 각사의 전력기기·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안정화 설비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전력망 안정화 설비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정부·한국전력과 함께 2028년까지 스태콤과 동기조상기 등 안정화 설비를 7.6GVar 규모로 확충하고 2029년까지 육지 계통에 그리드포밍 기능을 갖춘 중앙계약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최소 1.6GW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 연계와 전력망 현대화에 따른 설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는 전압 조절장치인 스태콤(STATCOM·정지형 무효전력보상장치)의 글로벌 시장이 지난해 12억달러(약 1조6080억원)에서 2033년 27억달러(약 3조618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6~2033년 예상 연평균 성장률은 10.5%다.

전력기기 업체들은 늘어나는 안정화 설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제품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LS머트리얼즈와 LS일렉트릭은 스태콤에 고속 충·방전 기능을 더한 ‘E-STATCOM’으로 차세대 전력망 안정화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기존 스태콤이 무효전력을 조절해 전압을 안정시키는 데서 나아가 울트라커패시터(UC)를 결합해 주파수 변동과 순간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에도 대응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과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사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양사는 지난 9일 업무협약을 맺고 LS일렉트릭의 전력변환·계통제어 기술과 LS머트리얼즈의 대용량 UC 시스템을 결합하기로 했다. LS머트리얼즈가 2024년 개발한 ‘LS UltraGrid’는 0.1초 이내에 MW급 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 양사는 실증으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시스템 국산화와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효성중공업도 스태콤과 슈퍼커패시터를 결합한 e-STATCOM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월 독일 스켈레톤과 일본 마루베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개발 완료와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효성중공업과 스켈레톤이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마루베니는 에너지저장 시스템 공급과 판매를 지원한다. 국내 상용화와 함께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스타트업 1000개사 발굴·육성

C랩 데모데이서 30개사 성과 공유
AI 스타트업 기술 검증·사업화 지원

삼성전자가 사내벤처와 외부 스타트업을 합쳐 총 1000개 기업을 발굴·육성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며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구 서울R&D캠퍼스에서 ‘2026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육성한 C랩 아웃사이드 8기 스타트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과 대구, 경북, 광주에서 육성한 스타트업 30개사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목승환 창업벤처혁신실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등 정부·국회·산업계 관계자와 투자자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데모데이에서는 C랩 아웃사이드 8기 스타트업 6개사가 주요 기술과 삼성전자와의 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로봇 AI 학습·배포용 데이터 기술을 개발하는 ‘컨피그인텔리전스’, 멀티모달 AI 기업 ‘피아스페이스’, AI 기반 신소재 설계·합성 자동화 솔루션 기업 ‘나노포지에이아이’ 등이 참여했다.

대구에서 육성된 피아스페이스는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와 연계한 컨설팅을 통해 개발·품질 관리와 사업 전략 분야에서 자문받은 경험을 소개했다. 나노포지에이아이는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AI 기반 신소재 개발 기술 검증(PoC)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C랩 아웃사이드 8기 스타트업 30개사 중 15개사가 삼성전자와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보스턴다이나믹스, 바퀴형 아틀라스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발 대신 바퀴를 장착한 실험 영상을 공개했다. 인간의 보행을 모사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휠 주행과 점프, 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구현하며 로봇의 구동 장치와 전신 제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섰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9일(현지시간) 아틀라스의 휠 타입 연구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발 대신 장착한 휠을 이용해 방향을 바꾸며 옆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공중에서 몸을 360도 회전한 뒤 착지하는 고난도 동작을 선보였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하나의 휠로 균형을 유지하거나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번 연구는 모터와 전신 제어 기술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한 상황으로 로봇의 작동 안정성과 반응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휠 주행은 출발과 회전, 정지 과정에서 모터가 하중을 지탱하면서 높은 토크와 속도를 동시에 구현해야 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이를 모터 성능과 제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학습도 적용했다. 가상환경에 실제 모터의 동작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하고, 학습한 동작을 실제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심투리얼(sim-to-real) 기술을 활용해 가상환경과 실제 로봇 간 오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양성운 기자 ysw@

수입 승용차 증가 속 상용차 부진 지속

수입 승용차 누적 등록 24.6% 증가
상용차 10월 반등에도 누적 4.7% 감소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승용차와 상용차의 판매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전기차 판매 확대에 힘입어 수입 승용차 등록은 증가한 반면 상용차는 지난달 큰 폭의 반등에도 누적 판매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31만846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다. 반면 수입 상용차는 3111대로 같은 기간 4.7% 감소했다.

최근 2년간의 흐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수입 승용차는 2024년 1~10월 21만5980대에서 올해 31만846대로 4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 상용차는 4109대에서 3111대로 24.3% 감소했다.

승용차 시장의 성장은 전동화 차량이 주도했다. 지난달 수입 승용차 등록 3만1117대 가운데 전기차는 1만4424대, 하이브리드차는 1만4272대로 전체의 92% 이상을 차지했다. 테슬라가 9165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6744대, BMW 5633대, 볼보 1682대, BYD 1594대 순이었다.

수입 상용차는 지난달 329대가 등록돼 전년 동월 대비 48.2% 증가했다. 다만 2024년 10월 403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18.4% 적어 지난해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브랜드별로는 볼보트럭이 126대로 전년 동월 대비 77.5%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 상용차 증가분 107대 가운데 55대를 차지했다. 다만 1~10월 누적 등록은 1171대로 4.8% 감소해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볼보트럭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등록 증가에는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 영향을 미쳤다.

/이승혁 기자 sh95@

예정처 '모두의 창업' 브레이크… "내년 계획 적정수준 조정"

내년 총 4411억 4000만원 편성
예정처 "올해 지원 기업 모니터링 후 성과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모창 프로젝트)를 놓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사업 계획 규모를 조정해야한다며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모창 프로젝트의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2027년에 4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다.

10일 중기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모창 프로젝트는 성과 기반 보육 지원 1669억원,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1500억원 등 총 4411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1·2차 프로젝트 참여자 지원 예산(604억1600만원)과 내년 3·4차 관련 예산(3807억2400만원)이 섞여있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3·4차 두 차례에 걸쳐 1만명씩 총 2만명을 선발해 사업화자금, 창업코칭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7년에는 2026년 지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에 집중하고 해당 프로젝트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한 뒤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등 내년 계획안 규모를 조정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모창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 평가가 쉽지 않은데 내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550억원으로, 내년엔 3배 가까이 늘려 잡았다.

중기부가 올해 5월부터 진행한 모창 프로젝트에는 일반트랙과 로컬트랙을 합쳐 총 6만2944명이 신청했다. 또 9월부터 시작한 2차에는 두 트랙에 1차때보다 3만명 가까이 많은 총 9만2838명이 접수했다.

1차 권역별 오디션과 트랙별 'TOP 100' 그리고 최종 우승자는 오는 12월에 결정한다. 2차는 지역 예선과 전국 오디션 등까지 진행하면 내년 1월에나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정처는 "(모창 프로젝트) 내년도 계획안은 올해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코칭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받은 총 1만5000명 가운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거나 창업 후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 보육기관·멘토별 지원 창업자의 단계(오디션)별 통과율 등 사업 성과 전반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예비창업을 지원하는 성격인데다 투자가 아닌 소진성 경비 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도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예비창업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린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 투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신청자 가운데 2라운드 진출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1000만원), AI 솔루션 활용 등을 지원한 결과 20개 기업이 29억원 가량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또 458건의 특허 출원과 192건이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발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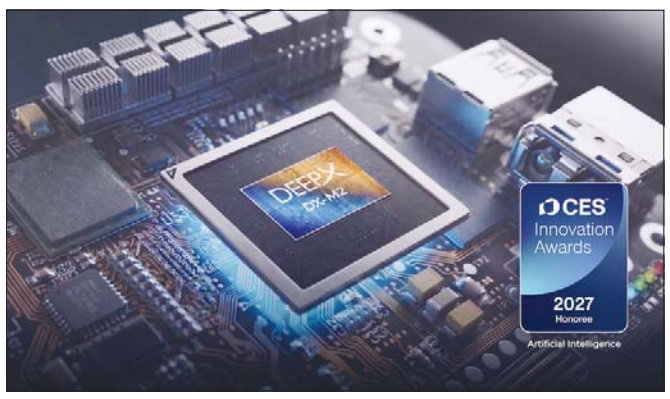
예정처는 "올해 프로젝트의 현재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신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내년도 계획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LG, AI·전장 등 잇단 혁신상… 초격차 기술 빛났다

CES 2027

삼성 공정 적용 딥엑스 'DX-M2'
삼성SDI 배터리 솔루션 등 수상
LG전자, 세계 첫 투명·무선 TV 수상



딥엑스 'DX-M2', CES 2027 AI 부문 혁신상. /딥엑스



CES 2027 최고 혁신상을 받은 세계 최초 투명·무선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LG전자

삼성그룹과 LG그룹 계열사들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7'에서 잇따라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과 디스플레이, 전장,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작을 배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내년 1월 열리는 CES 2027 개막을 앞두고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을 발표했다. CES 혁신상은 기술력과 디자인, 혁신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AI 반도체 'DX-M2'가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에 선정됐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 딥엑스가 개발한 이 제품은 약 5와트(W)의 저전력으로 로봇과 산업용 기기에서 생성형 AI를 직접 구동하도록 설계됐다. 딥엑스는 2028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SDI는 AI 데이터센터용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솔루션 'SDI U8A3-UPS'로 엔터프라이즈 테크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수상으로, 리튬망간산화물(LMO) 소재의 각형 배터리 셀을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공간 효율을 33% 높였다.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 UL솔루션즈의 옥내 대형 화재 시험에서도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 투명·무선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로 아트 테크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LG 올레드 TV는 2023년부터 5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투명 올레드 패널과 무선 영상·음향 전송 기술을 결합해 블랙 스크린과 투명 스크린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 초대형 무선 월페이퍼 TV와 게이밍 모니터, AI 생활가전 등도 혁신상을 받았다.

LG이노텍은 차세대 차량용 조명 모듈 '넥슬라이드 C+'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다. 넥슬라이드 C+는 보는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3차원(3D)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두께를 3mm 이하로 줄여 차량 후미등과 전면 그릴, 실내 무드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용 후 배터리 진단 솔루션 '리.펄스(Re.Pulse)'로 첨단 모빌리티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2년 연속 소프트웨어 기술로 수상한 것으로, AI를 활용해 배터리 건강상태와 잔존 성능을 분석한다. 기존 7시간 이상 걸리던 진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으며, 배터리 내부 셀 단위까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기부, '글로벌 육성' 기업 수출 56%↑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성과



중기부 전경.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사의 수출이 1년새 56% 넘게 늘어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관련 육성사업에 올해 선정된 100개사 가운데 수출 실적이 있는 92개사의 수출액은 올해 1~9월 70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52만 달러)보다 56.3% 늘었다.

수출 대상국도 44개국에서 75개국으로 확대됐다. 기존 동아시아, 미국, 중국 중심에서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31개국에 신규 진출하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됐다.

올해 새로 시작한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소비재 분야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 강화 교육, 수출형 제품 개발 및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 소비재 박람회 참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없었던 6개사는 첫 수출에 성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첫 수출과 신규 시장 진출을 이끄는 데도 기여했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국장은 "K-소비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호응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혁신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 헬스케어 기술 美 진출 지원

美 멤피스 보훈의료센터와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리나라 헬스케어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최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미국 보훈부 산하 멤피스 보훈의료센터와 국내 헬스케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및 기술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미국 현지 의료 수요 파악과 의료진·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 의료기술의 연구·임상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멤피스 보훈의료센터는 미국 보훈부 산하 의료기관으로,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전문 진료와 재활, 정신건강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의학·임상·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의료인력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헬스케어 기업과 기술교류 및 협력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재향군인 건강 관련 의료 수요·연구 우선순위·혁신 의료기술에 관한 정보 공유 ▲의료센터 연구자·임상의와 국내 중소벤처기업 간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촉진 ▲현지 연구·임상 협력 및 기술검증 기회 발굴 ▲세미나·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 공동 사업 모색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지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발굴하고 기업과 의료 전문가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헬스케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현지 연구·임상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며 현지 거점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협력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미국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렌탈 할인 등 혜택 풍성
블랙프라이데이 특별전

코웨이가 오는 26일까지 공식 자사몰 코웨이닷컴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에선 인기 제품 렌탈료 할인과 함께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대규모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더매너 비데 플러스,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등 비데·공기청정기 전 제품과 아이콘 정수기 3를 비롯한 정수기 2종은 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렌탈료를 월 1만원으로 할인한다. 특히 정수기는 최근 6개월간 코웨이 렌탈·멤버십 이용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이라면 할인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나 최대 15개월 동안 월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렉스 매트리스와 제로 음식물처리기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렌탈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통신 3사, AI 인프라 승부수 통했다… 데이터센터 매출 '쑥'

코로케이션 수요 확대, 가동률 상승
무선 가입자 해지율, 3사 모두 개선
수익성 개선·투자재원 확보 방안 검토



통신 3사가 올해 3분기 AI 데이터센터(AIDC)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실수요 확보에 성과를 냈다. /따능AI로 만든 이미지

통신 3사가 올해 3분기 AI 데이터센터(AIDC)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실수요 확보에 성과를 냈다. 본업인 유·무선 서비스도 개선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AI 데이터센터 매출 성장…가동률 상승 영향

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지난해부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AID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실제 수요 확보와 매출 창출 시점에 쏠렸다. 올해 3분기에는 코로케이션 수요가 늘고 데이터센터 가동률도 상승하면서 대규모 공급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KT클라우드(2682억원)와 SK텔레콤(1261억원)은 각각 7.7%, 6.2% 성장했다.

특히 LG유플러스(1317억원)가 27.7% 급증하며 성장폭이 가장 컸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년 6월 준공을 앞둔 파주 AIDC의 4개동 모두 고객 계약이 완료됐다고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설명했다. 지난 5월 글로벌 대형 고객사와 전산 1동 계약을 마친 것에서 수요가 확대된 것이다.

통신3사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에 맞춰 해저케이블 증설에도 나섰다. KT는 2031년까지 해저케이블 용량 90Tbps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현재 임차 중인 물량은 연내 판매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032년 이후 해저케이블 3개를 추가 구축한다. 특히 SK호라이즌 사업 분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저케이블 사업은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선 가입자 해지율 개선…통신 본업 안정화

통신 본업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무선 가입자 해지율은 3사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0.3% 개선됐다. 해지율은 SK텔레콤(0.9%), KT(1.0%), LG유플러스(1.10%) 순으로 낮다.

무선 매출에서는 수치상 흐름이 엇갈렸다. SK텔레콤의 3분기 이동통신 매출(2조5697억원)은 21.6% 상승한 반면, LG유플러스(1조6867억원)은 0.9% 소폭 감소했다.

KT는 위약금 면제 기간 영향으로 가입자가 이탈하며 4.0% 감소한 1조7380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3만4394원으로 고객 프로그램이 끝난 7월 이후 지속 개선 중이다.

유선 매출은 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와 함께 동반 상승했다. SK텔레콤은 7.4% 증가했으며,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5.4%, 0.1% 늘었다. 가입자 수도 최대 3%대 성장률을 보였다.

◆영업이익률 개선세…향후 투자금 조달 채비

통신 3사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SK텔레콤은 12.3%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1%p 상승했다. LG유플러스도 7.5%로 약 3.4%p 올랐다.

SK텔레콤 매출은 4조4973억원, 영업이익은 5523억원으로 각각 13.1%, 1040.3% 증가했다. LG유플러스 매출은 0.7% 감소한 3조9813억원, 영업이익은 84.1% 증가한 2976억원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의 고객감사 패키지와 LG유플러스의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가 양사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KT는 지난해 발생한 일회성 분양이익의 기저효과로 영업이익률이 7.2%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0.3%p 하락한 수치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조9975억원, 영업이익은 5053억원으로 각각 1.8%, 6.1% 감소했다.

통신 3사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유 중인 앤트로픽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분기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외부 조달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KT도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U+, 자동차 사이버보안 'ML3' 인증 획득

지난해 ML2 수준서 등급 상향
소프트웨어 실행까지 범위 확대



9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인증 수여식에서 (왼쪽부터) 박성율 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사업혁신그룹장(전무)과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전무), TUV 라인란드 코리아 프랭크 주트너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완성차에 탑재하는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한다. 지난해 획득한 글로벌 보안 인증 등급을 상향하면서다.

LG유플러스는 국제표준 기반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레벨 3단계(ML3)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ISO/SAE 21434'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TUV 라인란드가 부여하는 인증이다. 평가는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과정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국제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커넥티드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차량 소프트웨어의 사이버보안 역량도 중요해졌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안 기준을 강화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사에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보안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ISO/SAE 21434는 자동차의 기획·개발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차량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국제 표준 기반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해 ML2 수준을 확보했다. 이후 차량 인포테인먼트(IVI)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IVI 서비스 개발프로젝트에 실제 적용해 ML3 인증을 추가 획득했다.

ML3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 차량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보안 체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인정받았다. /조민선 기자

아이온2, 출시 1주년 대규모 업데이트

엔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가 출시 1주년을 맞아 신규 지역과 던전, 생활 콘텐츠를 추가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전투 시스템과 성장 구조를 개편하고 신규·복귀 이용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엔씨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아이온2' 출시 1주년 기념 행사 'AION2 1st ANNIVERSARY'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1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했으며, 개발진은 향후 업데이트 계획과 주요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

엔씨는 오는 11일 챕터1의 두 번째 이야기인 'Chapter 1. 빛과 장막의 경계'를 업데이트한다. 지난 7월 공개한 '엘테넨'과 '모르헤임'의 2부 지역을 확장하고 종족별 주둔지 6곳, 봉인던전 20곳, 메인 퀘스트 20종, 지역 퀘스트 14종을 추가한다.

캐릭터 성장 범위도 확대된다. 최고 레벨은 기존 50에서 55로 상향되며 장비의 최고 돌파 단계도 늘어난다.

신규 던전 콘텐츠는 난이도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이용자는 11일부터 개편된 원정 콘텐츠 '광신의 우루구구 협곡', '공허의 아르카니스'와 신규 초월 콘텐츠 '에라쿠스 유적', '서리바람 협곡'을 즐길 수 있다. 내년 1월에는 10인 성역 '승천의 요새 에레크'도 추가된다.

이용자의 플레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일부 원정과 초월 던전을 통합하고 '가라앉은 생명의 신전'에는 1인 모드를 지원한다. 원정과 초월, 성역에는 포인트를 활용한 확정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반복 플레이에 따른 보상 획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엔씨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확장과 기존 시스템 개선을 병행하며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플레이 환경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데이트와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온2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따능스쿨, 강원대서 AI 진로·마케팅 특강

AI로 진로 설계부터 홍보까지



지난 3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휴먼스포츠학과 학생들이 따능AI로 진로 브랜딩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이음 강사 제공

인공지능(AI) 아트 교육기업 따능스쿨은 따능스쿨 소속 이음 강사가 지난 3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휴먼스포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능AI를 활용한 진로 브랜딩 및 마케팅' 특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강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학과생 21명이 참석했다. 학과 측은 AI를 다뤄 본 경험이 적은 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진로와 마케팅을 주제로 한 교육을 요청했다.

특강에서 학생들은 따능AI의 이미지·영상·음악 생성 기능을 체험했다. 이어 가상의 진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페르소나와 브랜드 콘셉트를 설정하고, 브랜드 이름·로고·캐릭터·런칭 포스터·홍보 영상을 차례로 만들었다. 대화형 AI의 '스킬' 기능과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활용법을 배우며 마무리했다.

특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6명 가운데 14명이 전체 만족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매겼다. 'AI 활용 자신감'에 4점 이상을 준 학생도 강의 전 4명에서 강의 후 12명으로 늘었다. 가장 좋은 점을 묻는 복수 선택 문항에서는 12명이 '따능AI를 직접 써 본 것'을 선택했다. 따능AI는 따능스쿨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이다.

이음 강사는 AI 영화 감독으로, 감독한 AI 영화 두 편이 '2026 칸 AI 영화제'를 비롯해 국내외 영화제 37곳에 공식 선정되거나 수상했다. 연암대학교와 상명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등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며, 내달에는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이지 강사와 함께 'AI 홍보콘텐츠 포트폴리오 만들기' 과정을 연다. /김보민 기자 kbm@

넷마블, 日 코믹마켓서 '펄인블루' 알린다

러브코미디 RPG로 일본 공략

넷마블이 일본 시장을 겨냥한 서브컬처 신작 '펄인블루'를 일본 최대 서브컬처 행사에서 선보인다.

넷마블은 다음 달 29~31일 일본 도쿄국제전시장(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제109회 코믹마켓'에 모바일 신작 펄인블루를 출품한다고 10일 밝혔다.

펄인블루는 한 편의 러브코미디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달콤한 연애 체험과 역할수행게임(RPG)의 재미를 하나로 묶은 서브컬처 수집형 RPG다.

지난 '도쿄게임쇼 2026' 현장에서 베일을 벗으며 현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매달 새로운 여주인공과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월간 러브코미디'를 핵심 콘셉트로 내세웠다.

넷마블은 코믹마켓에서 펄인블루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기사 집단 '다크나이트' 소속 캐릭터 4명을 비롯한 주요 캐릭터와 무기 연출, 세계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현장 굿즈와 부스 구성 등 상세 정보는 12월부터 펄인블루 일본 공식 X(옛 트위터)에 차례로 공개한다.

펄인블루는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일본 선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가상자산 시장 커졌지만… 채권·펀드 토큰화는 '제자리'

두나무,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국내 RWA 누적 발행 규모 6400억
음악 저작권 65%, 미술품 17% 차지
자산군 넓히고 금융 인프라 구축 과제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거래를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전통 금융상품에 접목하는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음악 저작권과 미술품에 집중된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을 채권·펀드 등으로 넓히려면 발행뿐 아니라 유통과 결제, 수탁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을 개최했다. 이날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물 경제에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1117만 500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4만9000개(0.4%) 늘어난 규모다. 반면, 국내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5조4000억원) 대비 44% 급감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거래 기반이 형성된 것과 달리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실물자산 토큰화(RWA) 누적 발행 규모는 약 6400억원(약 4억5000만 달러)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감소한 국내 거래소 상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의 20.6%에 불과한 금액이다. 발행 자산 가운데 음악 저작권이 65%, 미술품이 17%를 차지했다. 채권과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도 국내 시장의 과제는 뚜렷하다. 암호자산 데이터 업체 RWA.xyz의 지난 8월 지표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화 자산의 총규모는 약 373억 달러, 사용자 수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토큰 발행 이후의 유통과 운용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행한 자산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연결하고, 투자자의 청약·환매와 자산 잔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개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넘어 토큰화 자산의 거래 기반을 연결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미쓰비시UFJ은행과 HSBC,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 킨넥시스, 소시에테제네랄의 SG-FORGE,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 5곳은 이달 싱가포르에 비영리단체 글로벌 레이어 원(GL1) 기구를 설립했다. 기관별로 분리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에서 토큰화 증권과 예금, 디지털화폐 등을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통 기술·운영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도 전통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5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의 토큰화와 통합 테스트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펀드 설정·환매·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펀드넷(FundNet)을 블록체인과 연결하고, 토큰증권지원플랫폼(BTN)을 통해 분산원장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도 2027년 2월 토큰증권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정형증권의 단계적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 등을 선정했다.

전통 금융상품의 토큰화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행된 자산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유통하고 청약·환매 등 사후 관리까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타이거리서치는 '모나드가 바라본 2030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RWA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시장의 무게중심은 단순 발행에서 토큰화 자산의 유통 및 운용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내 발행 자산은 글로벌 유통 채널이 부재하며,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수작업 및 배치(Batch) 처리 방식이 유지돼 토큰화의 효율성 이점이 퇴색된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삼전닉스 목표가 ⬇

목표주가 각각 19%·38% 하향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 반영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따능AI로 만든 이미지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주를 초토화시켰던 모건스탠리가 겨울 문턱에서 또 등장했다.

이번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멘텀(성장 동력)이 공급 확대(2027년 말 신규 생산시설 가능)로 약화할 것이라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전날 발표한 '메모리 반도체-미국 중간선거 이후 핵심 쟁점'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38%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도 기존 38만1000원에서 30만9000원으로 19% 낮췄고, 삼성전자 우선주 목표주가는 30만4800원에서 24만7200원으로 하향했다.

두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은 모두 '비중확대'(Overweight)를 유지했다.

숀 킴 연구원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2028년 '실적 절벽'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내년 실적 자체보다는 2028년 이후 성장세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 말부터 신규 생산시설이 가동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일부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을 반영해 2028년 가동 예정이던 약 5기가와트(GW) 규모의 프로젝트가 202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신규 설비 증가율은 2028년 기존 예상치인 약 21%에서 9%로 낮아지고, 2029년에는 20%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는 사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면 현재의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반도체 가격에도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경쟁 심화도 장기적인 수익성을 압박할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2027~2028년 HBM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기존 78~80%에서 약 70%로 낮추고, 삼성전자의 HBM 영업이익률 전망치도 약 80%에서 65~72%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9% 높인 약 688조원으로 제시했다.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13% 상향한 약 468조원으로 조정했다.

2028년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삼성전자는 10%, SK하이닉스는 1% 상향했다.

그럼에도 목표주가를 낮춘 것은 2029년 이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률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2029~2035년 전체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기존 평균 53%에서 28%로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주가는 기업의 기초체력보다 먼저 움직이며, 향후 몇 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둔화하면서 실적 전망치가 낮아질 위험을 선반영한다"고 설명했다./김아영 기자 aykim@

금감원, 상장사 회계감리 20년 주기 손본다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약 20년에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은 선별 점검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 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회계 전문가를 만나 이 같은 감독 방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 기간(3~5년)을 크게 웃돈다"며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3년 주기로, 영국은 FTSE 350 편입 기업을 5년 주기로 심사한다. 금감원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리 수단을 강화해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줄어드는 흐름도 들여다본다. 지난해 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2억5200만원, 평균 감사시간은 2348시간으로 2022년보다 각각 4.5% 줄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사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을 선별해 심사·감리하고,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고의성이 큰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부실로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폭넓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손익계산서의 기본 체계가 바뀌는 만큼 회계법인에 충실한 외부감사를 당부했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감사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도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빅테크 쏠림 피한 한투운용 펀드, 수익률 1위

美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
3개월·6개월·연초 이후·1년 수익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가 에프앤가이드 집계에서 3개월·6개월·연초 이후·1년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비교 대상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S&P500 투자 공모펀드 12개로, 클래스 기준으로는 145개다.

9일 기준 환헤지형 H(C-F) 클래스의 수익률은 6개월 5.22%, 연초 이후 9.89%, 1년 13.70%였다. 3개월 구간에서는 같은 펀드의 환헤지형 H(S-R) 클래스가 -1.33%로 1위였다. 같은 기간 유형 평균 수익률은 3개월 -5.76%, 6개월 -2.80%, 연초 이후 3.38%, 1년 5.34%였다.

한투운용은 동일가중 전략이 성과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S&P500 구성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편입해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에 대한 쏠림을 줄이고, 산업재·금융·헬스케어 등 여러 업종에 투자 비중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외국인 채권 투자심리 회복… 8.5조 순매수

금투협,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8조5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한 달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15%로 전월 말보다 29.6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10년물은 39.9bp 내린 연 4.008%, 30년물은 40.2bp 내린 연 4.124%를 기록했다. 1년물 금리 하락 폭은 14.5bp였다.

월초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장기물의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됐다. 월중에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국내 금리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미국 장기금리가 진정되고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다시 하락했다. 월말에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글로벌 기술주 약세로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졌다.

/허정윤 기자

폴리텍대, 산업 변화 맞춰 4년간 학과 47개 신설·77개 개편

대전캠퍼스 클라우드보안과 첫 졸업생 배출… 취업률 100%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 첫 졸업생 취업률 90.4% 성과

반도체시스템과, 올해 첫 신입생 출범 동시에 기업 채용협약반 운영



폴리텍대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 학생들이 위험 현장에 선진입하는 4족 보행 안전로봇의 구동 원리를 학습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

한국폴리텍대가 2020년대 들어 125개 학과를 신설 또는 개편했다. 노동시장 변화 및 기술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올해 첫 신입생을 받은 학과의 경우, 입학한 지 1년도 지나지 않는 학생이 기업 채용을 확정 짓는 사례를 만들어 냈다. 또 신생학과 1회 졸업생 전원이 취업·진학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다. 이처첨 산업 수요를 겨냥한 학과 설계가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폴리텍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산업 수요, 기업 의견 등을 종합해 매년 학과를 새로 만들고 변화해 왔다. 최근 4년간 신설 48개·개편 77개 등 125개 학과가 산업 변화에 맞춰 새 옷을 입었다. 반도체·산업안전과 같은 수요에 대응해 신규 학과를 만들고 기존 학과도 지역산업 구조에 맞게 꾸준히 손질해 온 것이다.

2024학년도에 신설된 대전캠퍼스 클라우드보안과는 올해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전원이 취업·진학에 성공하며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해당 과 졸업생들은 한국아이티진흥, 진인프라 등 클라우드 인프라·보안 전문기업을 비롯해 대학병원 전산실에 취업했다. 일부는 보안 전공 심화를 목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에 편입했다. 지능형 사이버 위협이 늘면서 데이터센터 보안을 책임질 실무형 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와, 국방·공공 연구기관 및 IT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충청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같은 해 출범한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도 첫 졸업생 배출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올해 첫 졸업생 취업률은 90.4%에 달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폴리텍대 학위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개설된 산업안전 학과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의 특성을 반영했다. AI 기반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 전공은 울산을 첫 시작으로 2025년 창원캠퍼스에 이어 2027년 서울정수캠퍼스까지 확대됐다.

또 2026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받은 성남캠퍼스 반도체시스템과는 출범과 동시에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와 채용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은 재학 중 채용 면접 등을 거쳐 1학년 2학기에 채용을 확정한다. 그 결과 올해 9월 군필자 5명은 취업을 확정하고 군 미필자 17명은 인재풀에 등재되어, 복학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채용이 확정된다.

포항캠퍼스 전기과는 철강·이차전지 등 지역 산업의 늘어난 전기설비 인력 수요에 맞춰 올해 문을 열었다. 만 4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특화과정에는 모집정원 40명에 119명이 몰린 바 있다. 올해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도 필기 22명 전원, 실기 19명 중 18명이 합격(94.7%)해 신설 첫해부터 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학과 신설과 개편은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가장 먼저 길러내겠다는 약속"이라며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지역 산업과 호흡하는 학과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기술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에너지바우처'로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기후부, 에너지 복지 강화 방안 시행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신설

등유·LPG 가구에 추가 바우처 지원

정부가 올겨울 한파를 앞두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복지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 가구 수를 전년보다 4만 가구 늘린 144만 가구로 확대하고, 예산도 5042억 원으로 증액했다.

우선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으나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가 신설된다.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내년 3월까지의 2만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형태 특성상 직접 바우처를 쓰기 힘든 계층을 위한 '사전 현금지급 제도'도 처음 시행된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래 전 미리 현금을 지급하며, 11월부터 신청 가구 5300여 곳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미사용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의 대상도 대폭 넓힌다. 지난해 전액 미사용 가구(5.9만 가구) 중심에서 올해는 50% 미만 사용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해 최대 12만 2천 가구를 방문, 카드 발급과 사용법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한다.

중동전쟁과 고환율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약 21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 상당의 추가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늘어나며,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통합 지급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 밖에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난방·전기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내년 5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전기 사용 제한 역시 내년 2월까지 해제된다. 전년도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여 촘촘한 에너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T, 美·EU 통관·규제 변화 대응방안 안내

내일 농식품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12일 '2026년 미국·EU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기업 대상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요 통관제도 및 규제 변화 관련한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 10월 열린 '아시아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에 이어 후속으로 마련됐다.

주요 농식품 수출시장인 미국과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농식품 시장 현황 ▲식품 수입통관 절차 ▲주요 통관제도 ▲2026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올해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원료의 안전성 인정제도인 'GRAS'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주요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과 EU의 최신 통관제도와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글로벌 식품시장 분석 및 2027년 농식품 수출 전망' 세션을 통해 글로벌 농식품 시장의 주요 이슈와 내년도 수출 전망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과 EU는 식품 안전과 표시·포장 등에 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시장의 최신 규제 동향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우리 농식품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는 당일 aT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된다. 관련 자료는 농식품 수출정보 누리집 '카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자원공사-英 리버풀권역정부, 조력발전 기술협력 강화

'조력발전 콘퍼런스' 공동 개최



한국수자원공사와 영국 리버플권역정부(LCRCA)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에서 공동 개최한 '조력발전 콘퍼런스'에서 오봉근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오른쪽 여섯 번째)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로 조력발전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영국 리버풀권역정부와 손잡고 글로벌 기술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9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 조력문화관 대강당에서 영국 리버풀권역정부(LCRCA)와 공동으로 '조력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조력발전 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와 지자체, 학계, 기업 및 영국 리버풀권역정부 관계자 등 국내외 조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력에너지는 기상 여건의 영향이 적고 발전량 예측이 가능한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시화조력발전소는 지난 2011년 254MW급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 이후, 원활한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과 갯벌 복원, 탄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산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시화조력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조상민 한국공학대 교수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조력발전의 역할 ▲메리 드루리(Mary Drury) 영국수력협회 의장의 영국 조력발전 기회·정책 및 실현 방안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의 국내외 해양에너지 개발 현황 및 미래 전망 등 총 6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 토론에서는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농업법인에 '공동영농' 교육

우수사례, 법·제도, 운영 관련 교육

한국농어촌공사가 '2027년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농업법인 관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충북 충주에서 진행됐다.

공사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에 따라 최근 '공동영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영농은 법인을 중심으로 농지를 공동 이용·경영하는 영농 방식이다. 분산된 농지를 집적화해 기계화 영농의 규모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교육은 공동영농 우수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늘봄영농조합법인 홍의식 대표가 경북 문경 영순지구의 공동영농 추진 과정과 농산물 생산실적, 참여농가 소득분배 성과를 소개했다.

공동영농 관련 법·제도와 농업법인 운영에 관한 교육도 진행됐다. 최정운 변호사는 공동영농 경영체 지정요건과 농지임대차 등 관련 법·제도를, 김태용 회계사는 농업법인의 설립·운영과 세무 실무를 다뤘다. 또 석태문 전 대구대 교수는 이모작 등을 활용한 고소득 작부체계 구성과 법인 수익 정산·배분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도 이어졌다. 농식품부의 홍성욱 사무관은 2027년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기준, 향후 공모 일정 등을 안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햇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햇터그룹
Haetter Group

화순군, 동복댐 증축에 상생 모색… 반도체 소부장 유치 박차

동복댐 증축에 266가구 이상 이주
지역 부담 상응한 산업 발전 모색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 본격 추진
배후 주거단지 조성·정주 여건 개선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 기반 강화


화순군청. /화순군

전남광주특별시 화순군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수 공급계획이 화순 동복댐 증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화순군은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자원 공급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동복댐 증축 과정에서 화순군은 수몰과 주민 이주, 농경지 및 생활터전 상실 등 상당한 지역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동복댐 증축 시 약 522만㎡의 수몰면적이 발생하고, 이서면·백아면 등 2개 면 8개 마을에서 약 266가구 이상의 이주가 예상되며,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생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화순군은 국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부담에 상응하는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핵심 상생발전 전략으로 삼고, 산업용지 확보와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기업이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화순군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업용지 확보와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화순군은 특히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남한강 여주보 활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2년 11월 SK하이닉스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 역시 동복댐 증축에 따른 지역적 부담을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와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유치의 핵심 기반인 산업용지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순군은 동면 운농리 일원에 약 290,469㎡(8.7만 평) 규모의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조성하기보다는 기업 투자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용지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 조성도 병행한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이 투자처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화순군은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를 참고해 반도체 기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분야별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기업 입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처럼 용수 공급 지역에도 반도체 협력기업이 입주하고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전담조직 운영과 산업용지 확보,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화순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핵심 배후 거점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라고 덧붙였다.

/화순(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충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전

도지사 본부장 범부서 대책본부 가동
도내 15개 시군 통합 지휘체계 구축

충남도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최고 단계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도지사가 방제 최전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최고 단계 범부서 총력 대응 체계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를 본부장, 행정부지사를 부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서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대책본부는 주민 홍보, 예산 확보, 생활권 위험목 관리, 드론 예찰, 법률 자문, 언론 홍보, 현장 안전 지원 등 7개 기능별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도내 15개 시군에도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부서뿐 아니라 재난·안전·홍보 등 관계 부서가 방제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현장 방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고, 내년 5월 말까지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앞으로 6개월을 재선충병 확산 저지의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내년 4월 말까지 선제적 집중 방제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드론·항공·지상 정밀 예찰로 신규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요 산림 보전 지역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북도와 경북 앵커센터, 영남대 한일미래인재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일본 나라대학을 방문해 대학 중심의 한일 미래 인재 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 일본 나라현과 인재 양성 협력

일본 나라현청·현지 대학 5곳 방문

경북도가 일본 나라현과 대학 중심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일 대학 교류협력단'을 상시 가동하고, 2027년 경북에서 '한일 대학 인재 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경북 앵커센터, 영남대 한일미래인재협력센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나라현청과 현지 대학 5곳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나라국립대학기구(나라여자대·나라교육대), 나라현립대, 나라대, 텐리대 등을 찾아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시 영상회의 운영, 공동 프로그램 발굴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각 대학의 교육·산업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연구, 교환학생, 세미나 등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대학 교류협력단'을 상시 운영하고, 2027년 경북에서 첫 국제포럼을 개최한 뒤 양 지역이 번갈아 행사를 열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부산,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국내 첫 개최

내년 11월 2~5일 벡스코서 열려

부산시가 내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제22회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를 연다. 이 총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고, 아시아 개최는 2002년 중국 다롄 이후 25년 만이다.

시는 현지 시각 지난 6일으로 프랑스 됭케르크 쿠르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총회 폐회식에서 차기 총회의 부산 개최를 공식 선포했다.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는 각국 항구도시와 항만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와 항만의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올해 총회는 '움직이는 도시와 항만, 이제 실천할 때'를 주제로 3일부터 6일까지 됭케르크에서 열렸다.

폐회식에는 오석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차기 개최도시 대표로 나섰다. 오 부시장은 올해 개항 150주년을 맞은 부산항이 세계 2위 환적항으로 성장한 과정을 설명하고, 북항 재개발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기반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참가자들을 부산 총회에 초청했다.

항구도시 간 논의가 2028년 6월 부산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로 이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부산=김재남 기자 metrobusan99@

인천, 부평·주안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국토부 재생사업지구계획 최종 승인

인천시가 조성 50년을 넘긴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근로·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인천시는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6일 최종 통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정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과 2021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업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재생사업은 2027년 상반기부터 2029년 12월까지 국비 170억 원을 포함해 총 341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교공원 지하·노상 주차장 493면을 확충하고, 인천교 녹지 2만 1,274㎡를 정비해 인천교공원, 부평열우물숲과 연결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지역 이모저모

시흥도시공사
월곶역세권 바이오도시 조성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18일 시흥시 월곶동 520-5번지 일원에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약 23만5,780㎡ 규모 부지에 산업·연구 기반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바이오션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인력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주거시설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각각 1,150세대씩 총 2,300세대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영양군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쌀값 안정

영양군이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688톤을 사들여 수확기 쌀 시장의 수급 안정에 대응한다. 수매 과정에서 품종 확인과 벼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만큼 농가의 출하 준비가 매입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매입은 11월 9일 시작해 18일까지 진행되며, 전체 물량은 40kg 단위로 환산하면 1만7216포대에 이른다. 수매 대상은 삼광벼와 해담쌀벼 두 종류로 한정된다. 영양군은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출하 품종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종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산지에서 거래된 쌀값을 토대로 정해진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목포시
'e호조+빌' 내년부터 의무화

목포시는 사업자의 대금 청구 편의를 높이고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 대금 청구 시스템 'e호조+빌' 이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는 대금 청구 서류를 제출한 뒤 보완 여부나 지급 처리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e호조+빌을 통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처리 상황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방문과 종이 서류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하동군-아에로멕시코
하동녹차 세계화에 날개 달아

아에로멕시코가 오는 15일부터 인천~멕시코시티 왕복 항공편에서 하동녹차를 제공한다. 하동군과 아에로멕시코는 이를 위해 지난 4일(현지 시각) 멕시코시티에서 기내 서비스 도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동녹차를 제공하는 노선은 주 7회 운항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국제선 탑승객에게 하동의 전통 차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하동군수, 이주일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 김태종 하동군의회 운영위원장과 아에로멕시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동(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소주·맥주 다 만든다… 주류업계 新 생존전략

연말에도 썰렁한 주류시장

지난해 소주 출고량, 2.8% 줄어
주류업계, 실적 부진에 사업 다각화
오비맥주 '찰랑', 소주시장 진출
하이트, '테라&참이슬' 쏘맥 구현
롯데칠성음료, RTD 제품군 확대



오비맥주, 소주 브랜드 '찰랑' 론칭 캠페인 전개. /오비맥주

주류업계가 줄어드는 술잔에 대응하기 위해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음주문화 변화와 소비 위축으로 소주·맥주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기존 제품의 점유율 경쟁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류시장은 전통적인 소주·맥주 소비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맞물리며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희석식 소주 출고량은 79만3000㎘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2022년 86만2000㎘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주요 주류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하다. 하이트진로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조4986억원, 영업이익 172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3.9%, 17.2% 감소한 수치다. 오비맥주는 매출이 1조7785억원으로 2.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465억원으로 5.4% 줄었다.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도 매출 7527억원, 영업이익 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5%, 18.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업체별 희비가 엇갈렸다. 하이트진로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0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09억원으로 4.9% 줄었다.

롯데칠성음료 주류 부문은 상반기 매출 3893억원, 영업이익 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34.5% 증가했다. 적자 사업 정리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재편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맥주 매출은 188억원으로 29.5% 감소해 주력 사업의 경쟁력 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처럼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업체들은 기존 주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영역과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맥주와 소주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비맥주는 지난 9월 소주 신제품 '찰랑'을 앞세워 국내 소주 시장에 진출했다. 알코올 도수 15도의 제로슈거 소주로, 제주 동부지역 화산암반수를 사용하고 용암해수소금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오비맥주 제주공장에서 전량 생산한다.

이번 진출로 국내 주요 주류 3사 모두 소주와 맥주를 함께 취급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게 됐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진로와 테라·켈리를,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새로와 크러시·클라우드를 앞세워 업소용 시장을 공략해 왔다. 오비맥주 역시 카스의 영업망을 기반으로 소주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식당과 주점 거래처 확보 경쟁에 가세했다. 실제 10월27일 기준 찰랑은 전국 2848개 식당과 주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홍대 약 60곳, 종로 80곳, 강남 120여 곳으로 집계됐다.

업체 간 경쟁이 기존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 다툼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음용 수요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출시한 '테라&참이슬'이 대표적이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참이슬'을 한정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순히 쏘맥의 맛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테라와 참이슬 원제품을 실제로 배합해 알코올 도수 6.0도의 주질을 완성했다. 485mL 캔 제품으로만 출시하며, 17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 가정채널에서 시즌 한정 판매한다. 소주와 맥주를 각각 구매해 섞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한 캔 단위로 소비할 수 있어 홈술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신제품 확대가 반드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참이슬과 테라를 구매하던 소비자가 신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오비맥주 역시 소주 시장에서 기존 업체들의 견고한 거래망과 브랜드 인지도를 넘어야 한다. 맥주 영업망을 활용해 초기 입점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소비자의 재구매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와 처음처럼을 중심으로 소주 경쟁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칵테일·하이볼·사워류 등 RTD 제품군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 출시와 사업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판촉 경쟁까지 심화하면 영업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기존 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모든 회사의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

3분기 영업익 1643억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신세계가 올해 3분기 백화점 사업의 성장과 연결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외국인 고객 증가와 주요 점포의 매출 호조가 백화점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면세·패션·호텔·리빙 등 자회사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

신세계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총매출 2조9034억원, 영업이익 164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4.6% 늘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다.

백화점 사업은 총매출 1조8565억원, 영업이익 10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23.5% 증가했다. 주요 점포별로는 본점 매출이 44% 늘었으며 강남점과 센텀시티점도 각각 17%, 14%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외국인 고객 증가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올해 3분기까지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85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럭셔리·컨템포러리 브랜드 강화와 식음료(F&B) 콘텐츠 확대 등 점포 경쟁력 강화 전략도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연결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도 두드러졌다. 신세계디에프는 3분기 매출 4511억원, 영업이익 25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억원 늘어나 흑자 전환했다. 신세계센트럴은 매출 1072억원, 영업이익 312억원으로 각각 9.3%, 13.0% 증가했다. 신세계 편입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300억원을 넘어섰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매출 2995억원, 영업이익 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6% 증가하고 흑자 전환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 상품권 SHINSEGAE 무이자할부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체험 콘텐츠

백화점 3사 겨울 할인 행사

롯데, 아웃도어·FW 상품 할인 확대
신세계, 구매 금액별 적립·할인 혜택
현대, 아우터 물량 20% 이상 늘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일제히 겨울 정기 할인 행사에 나선다. 패션과 아웃도어 등 겨울 상품 할인부터 카드사 제휴 혜택, 이색 팝업스토어까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연말 소비 수요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전 점포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 세일인 '2026 겨울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패션·아웃도어·키즈 등 4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파에 대비한 아웃도어 상품과 가을·겨울(FW) 시즌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할인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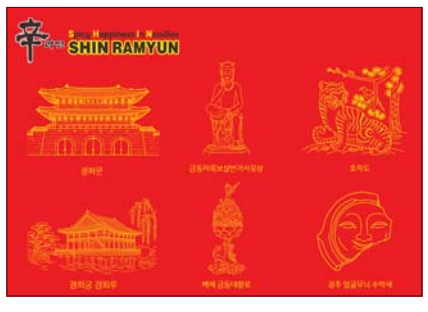
창립 47주년을 기념한 카드사 연계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현대·KB국민·NH농협카드로 단일 브랜드에서 20만원 또는 40만원 이상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5%를 롯데모바일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패션위크 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는 롯데카드로 단일 브랜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한다. 연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크리스마스 캐릭터 '헤이예티' 관련 이벤트와 이모티콘 증정 행사도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2일부터 29일까지 전 점포에서 시즌오프 및 할인 행사 'End Of Season'을 연다. 남성·여성패션과 스포츠, 아동, 잡화, 리빙 등 37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타임·마인·시스템·타미힐피거 등 주요 패션 브랜드의 구매 금액별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신세계 신한카드 Best Fit 이용 고객에게는 행사 기간 20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점포별로 노스페이스 키즈와 마리끌레르 팝업, 코웨이 비렉스·까사미아 홈 스타일링 행사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13일부터 29일까지 압구정본점과 더현대 서울 등 전국 점포에서 겨울 시즌 할인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 패션·리빙·스포츠 등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FW 시즌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할인한다. 겨울철 수요가 늘어난 패딩과 코트 등 아우터 물량도 브랜드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확대했다.

점포별 특화 행사와 체험형 콘텐츠도 선보인다. 무역센터점에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캐시미어 의류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열고, 판교점에서는 영패션 브랜드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배드민턴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판교점에서는 F1 레이싱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튜더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21일부터는 더현대 서울에서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 모란디 특별전도 개최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겨울 세일이 연말 쇼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 마케팅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할인과 구매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크리스마스 연출과 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워 고객 방문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농심

문화유산 40종 담은 신라면 패키지 선봬

농심이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맞아 국보·보물 등 국내 대표 문화유산 40종의 이미지를 패키지에 적용한 '신라면 문화유산 한정판'(사진)을 10일 선보였다.

이번 한정판은 신라면 포장재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매울 신(辛)' 자 자리에 40가지 문화유산 디자인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농심은 대상 문화유산을 ▲한국의 풍경(경복궁·숭례문·수원화성 등 유적) ▲한국의 자부심(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백제금동대향로 등 유물) ▲한국의 일상(하회탈·나전칠기 등 전통 예술) 등 3개 테마로 분류해 구성했다.

해당 디자인은 봉지면 11종, 큰사발 13종, 소형 컵면 16종 등 총 40개 규격 제품에 분할 적용된다. 오는 12월까지 약 두 달간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시판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음료, 태국 음료·생수 시장 공략

CP엑스트라 유통망 활용

롯데칠성음료가 태국 최대 기업 집단인 CP그룹의 유통 계열사 CP엑스트라(CP AXTRA)와 음료 및 생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9일 태국 방콕 CP엑스트라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을 통해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시장 공략 계획을 밝혔다. 행사에는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타닛 치라바논 CP엑스트라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웰푸드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진이 참석했다.

롯데칠성음료는 CP엑스트라가 보유한 대형마트 마크로(Makro)와 슈퍼마켓 로터스(Lotus's)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음료 및 생수 브랜드 입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CP엑스트라 전용 상품 입점 등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는 롯데웰푸드도 함께 참여했다. 롯데 식품 계열 양사는 CP엑스트라의 동남아 유통 네트워크 및 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공동 상품 개발과 마케팅 시너지를 모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9일 태국 방콕에서 CP엑스트라와 음료 및 생수 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타닛 치라바논 CP엑스트라 대표이사,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커지는 위산억제제 시장… 케이캡 선두 굳히고, 자큐보 추격

HK이노엔, '케이캡' 美 FDA 추진
제일약품 '자큐보' 월 처방액 100억
대원제약 '파도프라잔', 출격 준비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기존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계열 약물이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약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국내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규모는 2019년 8001억원에서 2025년 1조4764억원으로 커졌다. 이 중 P-CAB 약물의 올해 연간 처방 규모는 4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발주자의 입지 굳히기와 글로벌 영토 확장, 후발주자의 거친 추격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P-CAB 치료제 '자큐보'는 2024년 10월 출시되고 2년 만에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상위권 10'에 이름을 올렸다. 2026년 10월 기준 자큐보는 원외처방액



'케이캡' /HK이노엔

103억원을 기록했고 처음으로 월 처방액 100억원 대에 진입했다.

자큐보는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제37호 국산 신약이다. 빠른 약효 발현, 긴 반감기를 통한 야간 위산 분비 조절, 식사 여부와 무관한 복용 편의성 등을 앞세워 처방 기반을 다져 왔다. 구강붕해정 출시, 위궤양 적응증 추가 등으로도 후속 성장을 계속했다. 특히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 피로리 제균요법 등에 대한 추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한편 중국, 인도 등 신흥 제약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큐보가 국내외 시장 안착을 굳히는 동안 P-CAB 시장의 독보적 선두 주자 HK이노엔의 '케이캡'은 압도적인 국내 실적을 발판 삼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

케이캡의 올해 1~9월 누적 처방액만 이미 185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처방액의 85%를 달성했다. 올해 3분기 단일 분기 처방액만 654억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완제품 수출 국가 또한 몽골, 필리핀 등 초창기 2개 수준에서 현재 20개 이상으로 늘어나 해외 매출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같은 폭발적 성과를 바탕으로 HK이노엔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케이캡의 신약 허가 신청서(NDA)를 제출한 상황이다.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식도염 치료,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요법 등 3가지 적응증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며 오는 2027년 1월 최종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자큐보정' /제일약품

미국 환자 2000여 명이 참여한 임상 3상에서 우월성을 입증한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HK이노엔은 국산 P-CAB 신약의 무대를 글로벌 무대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후발주자의 추격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일동제약이 개발하고 대원제약이 국내 임상을 맡은 P-CAB 신약 후보물질 '파도프라잔'이 최근 국내 임상 3상 시험에서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하며 상용화 임박을 알렸다.

해당 임상을 통해 파도프라잔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328명에서 식도 점막 결손 완화 효과 등을 입증했다. 중대한 이상사례 없는 안전성도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올해 안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파도프라잔까지 시장에 등판할 경우 국산 P-CAB 신약 라인업이 한층 다변화될 것"이라며 "시장 파이가 확대되는 만큼 선·후발 제약사 간 주도권에 대비한 전략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보령, 내용고형제 생산시설 EU-GMP 인증

유럽 제조 기준 충족… 경쟁력 입증
글로벌 위탁개발생산 사업 확장

보령이 의약품 제조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수주에 속도를 낸다.

보령은 자사 핵심 생산단지인 예산캠퍼스 내 내용고형제 생산시설에 대해 유럽연합(EU)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을 통해 EU-GMP 인증을 최초로 확보한 데 이어, 이번 내용고형제 생산라인까지 추가하며 제조 경쟁력과 품질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인증을 위해 독일 튀빙겐 지역 관할 GMP 감독기관은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캠퍼스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단은 단순 제조시설 점검을 넘어 품질경영시스템(QMS), 품질위험관리(QRM), 데이터 무결성, 보관 및 공급망 관리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엄격하게 평가했다.

EU-GM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와 함께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으로 꼽힌다. 특히 유럽


보령 예산캠퍼스 전경 /보령

내에서도 의약 감독체계가 엄격한 독일 규제기관의 실사를 통과함에 따라 보령은 해외 진출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은 최근 오리지널 세포독성항암제 '탁소텔(성분명: 도세탁셀)'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왔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보령이 보유한 주요 고형제 품목의 해외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 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예산캠퍼스는 보령이 지난 2019년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다. 연간 약 8억 7000만 정에 달하는 내용고형제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다. 2020년 항궤양제 스토가정(성분명: 라푸티딘)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 제품군, 오리지널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등 주요 제품을 전담 생산하고 있다.

보령 박경숙 생산품질부문장은 "항암주사제에 이어 내용고형제 생산시설까지 EU-GMP 적합성을 확보한 것은 예산캠퍼스의 제조·품질 경쟁력이 글로벌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더 확장됐다는 의미"라며 "예산캠퍼스가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조·품질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홍대서 'K-컬처 축제' 연다

게임·공연 등 시민 참여형 행사

퇴근길 홍대 거리가 신나는 공연과 선물 상자로 가득 채워진다. 애경산업이 스킨케어부터 샴푸까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뷰티 및 생활 브랜드를 활용해 시민들과 즐겁게 호흡하는 거리 축제의 장을 연다.

애경산업은 오는 13일 서울 홍대 걷고 싶은거리 만남의광장에서 'K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일의 즐거움을, 오늘의 축제로'를 주제로 열리며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스텝퍼, 순발력 게임, 로고 찾기, 사격, 크레이지카, 가챠 머신 등 애경산업의 브랜드 색깔을 입힌 6개 미션이 주어진다. 미션 성공 시 크림, 헤어마스크, 풋샴푸 등 알찬 경품이 쏟아진다.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랜덤 플레이 댄스, 구독자 233만을 보유한 유튜브 계정 창현거리노래방과 함께하는 노래 무대 등도 펼쳐진다.

2부는 댄스 크루 비아워크루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분위기를 달구며 라이징 스타 노이, 발라드 보컬 박다혜, 음악과 예능을 넘나드는 힙합 가수 딘딘 등이 무대를 장식한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지난 9월 미술 전시 후원에 이어 본사가 위치한 홍대에서 시민들과 직접 교감하고자 한다"며 "매일 쓰는 화장품처럼 문화 역시 고객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JW생활건강, 초저가 건기식 시장 공략

이마트 '와우샵'에 6종 입점

JW중외제약의 생활건강 전문 계열사 JW생활건강은 이마트의 초저가 생활용품 전문 매장 '와우샵'에 건강기능식품 6종을 입점했다고 10일 밝혔다.

와우샵은 이마트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을 겨냥해 선보인 숍인숍 형태의 매장이다. JW생활건강은 전 제품을 5000원에 선보이며, 대형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

입점 제품은 원데이팩 4종과 '코엔자임Q10', '테아닌·마그네슘' 등 총 6종이다. 현재 와우샵 월계점, 은평점, 군산점에서 판매 중이며, 신규 매장 개점에 맞춰 판매처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데이팩은 '파워활력', '다이어트', '면역프로', '종합멀티'로 구성됐다. 하루 섭취분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으며,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관리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코엔자임Q10'과 '테아닌·마그네슘'을 더해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



와우샵 입점 JW생활건강 '건강기능식품' 6종 /JW중외제약

JW생활건강은 이번 입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대한 가격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기존 고객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젊은 소비자층까지 고객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JW생활건강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까운 매장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입점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와 건강관리 트렌드를 반영해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 북촌서 오감만족 뷰티 체험 선사

카카오톡 기프트X와 협업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연말을 맞아 고즈넉한 한옥에서 낭만적인 힐링 뷰티를 준비했다.

설화수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6일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카카오톡 기프트X와 협업해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설화수 기프트X 상품을 선물 받은 고객은 동반 1인과 참여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설화수 브랜드 철학과 대표 원료인 인삼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행사로 구성했다. 향낭 만들기 교실, 한옥과 다과를 즐기는 티타임 등이 이어진다.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전용 사진 촬영, 방문 기념 선물 등도 제공한다.

설화수 카카오톡 기프트X 상품은 12월 5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프로그램 예약은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설화수 관계자는 "홀리데이 시즌에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과 경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설화수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북촌 설화수의 집 전경 /아모레퍼시픽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일 시 2026년 11월 18일(수) 14:00~17: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이경전
-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김지섭
-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우용** 한국SW · 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한국AI서비스학회장 :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강연	14:50~15:20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팀장 :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CPMI 첫 비서구권 의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의장으로 선임됐다. 신 총재의 CPMI 의장 선임은 비 미국·유럽 중앙은행 총재로서 최초다. 한국은행은 신 총재가 국제결제은행 세계경제회의(BIS GEM)에서 회원국 협의를 거쳐 CPMI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신 총재는 지난 1일부터 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CPMI는 지급결제제도,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 및 협의기구다. 28개 주요국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지급·청산·결제 및 여타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전 세계 지급결제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중앙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정책·운영 협력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리은행, 조손가정 아동 진로 지원

우리은행이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했다. 우리은행은 조손가정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오손도손 잡(JOB)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해외 우수직원 국내 초청 연수

NH농협은행은 이달 13일까지 해외점포 우수 현지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 8개국에서 11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는 현지채용직원과 글로벌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



금투협, 해병대 장병 금융교육·위문금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10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교육을 하고, 금융투자업계가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군 복무 중 금융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장병들이 올바른 금융투자 가치관과 자산 형성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금융투자협회

부음 ▲정경남(향년 86세)씨 별세, 유상훈·유대희·유숙·유미씨 모친상, 최치봉(더팩트 전남광주제주취재본부장)씨 장모상 = 9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105호, 발인 11일 오전 11시 30분. 062-527-1000

▲김경한(전 대전MBC 상무·향년 94세)씨 별세, 김욱동(서울 강남 에이플러스치과 원장)·김혁동(서울 송파 김혁동한의원 원장)·김명동(전 삼성물산 부장)씨 부친상 = 9일 0시 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50분, 장지 의왕하늘쉼터. 02-2258-5957

"농어촌에 독서 희망"… SK이노베이션, 도서관 32곳 조성

3년간 도서 3만3000여 권 기부
아동 2000여 명 독서 환경 개선
독서 빈도 87%·흥미 160% 증가

SK이노베이션이 농어촌 아동들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조성과 도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고아읍 고아지역아동센터에서 '2026년 농어촌 아이들을 위한 행복Dream 도서관 개소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경북 구미와 전북 진안, 경남 밀양 등 농어촌 지역 7곳에 도서관을 조성했다. 2024년 15곳, 지난해 10곳에 이어 누적 32곳으로 늘었다. 지난 3년간 기부한 도서는 3만3000여 권이며, 지원받은 아동은 2000여 명이다.

행복Dream 도서관은 농어촌 지역의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고 책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기본급의 1%를 모아 조성한 '1% 행복나눔기금'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교보문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확대했다.



장홍락 리안공간 과장(왼쪽부터), 장성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장, 나대활 구미 YMCA 사무총장,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장, 엄상홍 SK이노베이션 CSR팀장,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양진영 교보문고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 권경자 고아지역아동센터장이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고아읍 고아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행복Dream 도서관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기부 도서는 구성원과 시민, 교보문고가 함께 마련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한 '2026 어린이 책Dream 프로젝트'로 도서 1만2000여 권을 모았다. 방송인 홍현희와 이낙준 작가도 홍보 영상에 참여해 시민들의 도서 기부를 독려했다.

도서관 조성 이후 아동들의 독서 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사업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서 빈도는 사업 전보다 87%, 독서에 대한 흥미는 160% 증가했다. 도서관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아동들은 최신 도서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책을 만나고,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삼표그룹, 암 생존자 일상 회복 지원

연세대 주최 제2회 온코런 후원

삼표그룹이 암 생존자의 일상 회복과 암 예방을 돕기위해 '온코런'을 후원했다. 삼표그룹은 최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와 안산자락길 일대에서 열린 '제2회 온코런(ONCORUN)'을 공식 후원하고 임직원이 함께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와 연세암병원이 공동 주최한 '온코런'은 암 생존자와 가족, 의료진, 지역주민이 함께 달리고 걷는 참여형 행사다. 종양학(Oncology)과 러닝(Run)의 합성어로 운동이 암 예방과 재활,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위해 마련됐다. 삼표그룹은 운동으로 암 생존자의 일상 회복과 암 예방을 돕는다는 취지에 공감해 온코런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연세대에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암 생존자, 지역주민 등 1100여 명이 함께 암 예방과 운동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듣고 5km 달리기와 3.2km 걷기 코스를 선택해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콜마, CES 2027 혁신상 3관왕

뷰티테크 최고혁신상 2년 연속 수상
AI 맞춤형 화장품 제조 기술력 입증

한국콜마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7'에서 뷰티테크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을 2년 연속 석권해 인공지능(AI) 기반 화장품 제조 기술력과 글로벌 K뷰티 역량을 입증했다.

한국콜마는 오는 2027년 1월 6~9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7'을 앞두고 발표된 수상 결과에서 '크로마 플로우'가 뷰티테크 부문 최고혁신상과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을, '루미젯 프로' 역시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출품작 2개 모두 상을 받아 총 3관왕에 올랐다.

우선 크로마 플로우는 맞춤형 립 제품을 위한 기술이다. 화면 속 인플루언서의 립 색상을 내 입술에 그대로 구현한다. AI 광학센서가 개인마다 다른 입술 색과 톤을 분석해 최적의 배합 비율을 계산하고, 7개 컬러 카트리지를 활용해 원하는 색상의 립 제품을 1분 안에 만든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소진공, 여가친화경영 기관 재인증 획득

2024년 첫 인증 이어 재인증 성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여가친화경영 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10일 소진공에 따르면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소진공은 2024년도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재인증에도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 장시간 근로 개선 노력,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지원제도 운영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연차휴가와 유연근무 사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2025년 연차휴가 사용률 91.5%를 달성했다. 또한 노사 협의를 통해 '22년 이후 매년 초과근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AI·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장시간 근로 개선에도 힘썼다. /김승호 기자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화M&S 본사에서 열린 '2027 월간 한 모금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한화그룹, '월간 한 모금' 나눔 확대

한화 계열사 7곳 사회공헌 동참
밀알복지재단과 지원 협약 체결

한화그룹 테크·라이프 부문 계열사의 사회공헌사업 '월간 한 모금'이 지원을 크게 늘린다. 신설 지주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M&S)를 중심으로 참여사와 지원 규모를 함께 키워 치료가 시급한 장애 아동 가정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한화M&S, 한화비전, 한화세미텍,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한화푸드테크 등 7개사는 지난 9일 한화M&S 본사에서 밀알복지재단과 '2027 월간 한 모금'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금 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은 임직원 성금에 회사 기금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마련됐다. 올해 지주사 출범을 계기로 한화M&S·한화세미텍·한화푸드테크 3곳이 새로 참여했고 내년 지원금도 올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명은 한화의 '한'과 '모금'을 합친 것으로 갈증을 풀어주는 물 한 모금처럼 의료 지원이 급한 가정에 힘이 되겠다는 뜻을 담았다.

'월간 한 모금'은 2024년부터 지금까지 장애 아동 56가정에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했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긴급한 아동부터 먼저 돕는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박지온 군의 어머니 권성화 씨는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적기에 지원받아 지온이가 끊기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국앤컴퍼니, 장애인배드민턴 리그 성료

영암 최종전 끝으로 올해 일정 마감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후원하는 장애인배드민턴 리그가 영암 최종전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쳤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026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장애인배드민턴 리그'가 지난 8일 전남 영암실내체육관에서 폐막했다고 밝혔다.

올해 리그는 5월 충남 태안, 7월 충남 금산, 11월 전남 영암에서 세 차례 열렸다. 지난 5~8일 진행된 최종전에는 전국 선수와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했다. 누적 성적을 합산한 결과 선수부 단식 종합 순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회동호인부에서는 경기도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그룹은 2024년 첫 대회부터 3년 연속 후원을 이어왔다. 대회는 지난해부터 전문 선수와 동호인이 함께 참가하는 전국 단위 리그로 확대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장애인배드민턴 리그전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선수와 동호인들이 꾸준히 기량을 펼치고 교류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KWANGLIM
ARTS CENTER
JANGGCHEON HALL
Pianist 강충모
(북일1회)
Pianist 이혜진
(특별초청)
Trumpeter 유병엽
(북일5회)
Saxophonist 홍순달
(북일7회)
Cellist 유지연
(북일여고4회)
초대의 글
존경하는 복일 동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반세기를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교 50주년 기념 송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복일의 명예를 빛내주신 동문 여러분을
모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모교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대 복일고재경총동문회장
황 규 하 올림
50년의 시간, 음악으로 하나되다
KWANGLIM ARTS CENTER
JANGGCHEON HALL
7:00
일시 : 2026년 12월 11일(금) 7:00~
장소 :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압구정로22길 21 (압구정역 4번출구)
주최 : 복일고 재경동문회
주관 : 사단법인 국제재즈교류협회
후관 : 복일고 총동문회, 복일여고 총동문회
사회자 : 편상옥 앵커(복일9회, SBS 보도분부 부국장)
이문정(복일여고2회, 전 MBC기상캐스터)
입장료 : 동문 사랑 후원 티켓 1인당 5만 원
※ 분 입장료는 복일동문의 발전과 풍성한 행사를 위해
전액 '동문 발전 후원금'으로 소중히 사용됩니다.

美 블루 쓰나미, 한반도에 밀려오는 파도



김 희 석
칼 럼

미국 중간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른바 '블루 쓰나미'로 불리는 민주당의 압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과 예산 운용은 물론 대외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블루 쓰나미의 여파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도 밀려왔다. 코스피지수는 한 주 만에 11.7%나 급락했다. 5거래일 동안 670포인트 넘게 빠졌고, 장중 한때 5000선마저 무너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표출되면서 관련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 탓이다.

문제는 그 파장이 반도체 산업이나 금융시장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다. 워싱턴의 권력 지형 변화는 통상과 관세, 첨단기술, 방위비 분담, 대중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반도는 주변국의 질서 변화에 유난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온 역사를 갖고 있다. 16세기 말 일본에서는 오랜 전국시대가 통일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국내의 통일을 발판으로 대륙 진출을 시도했고,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어야 했다.

17세기에는 중국 대륙의 패권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이 진행됐다. 만주족의 세력 확대와 명·청 교체 과정에서 조선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다. 기존의 명 중심 질서에 익숙했던 조선은 새로운 강자의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20세기 중엽의 냉전 역시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가 양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분단됐고, 내부의 갈등은 국제적 대립과 결합해 한국전쟁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의 미국 선거를 과거의 왕조 교체나 전쟁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시대도 다르고 국제관계의 작동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하다. 강대국 내부의 권력 변화가 주변국의 운명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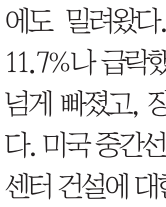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변 정세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부의 격변이 언제나 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다는 것과 그 선택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주변이 복잡해질수록 우리 내부의 불확실성부터 줄여야 한다. 대외환경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정책 혼선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의 기본 방향이 흔들리고, 국가적 현안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면 외부의 충격은 몇 배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안보와 통상, 첨단산업처럼 국가의 장기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만큼은 지속 가능한 정책과 초당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관된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 오랜 시간 쌓여 형성되는 자산이다. 상대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협력의 기반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차기 정권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에 베팅하기보다 민주당과 공화당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일이 우선이다.

미국의 선거는 미국 국민이 결정한다. 그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의 변화에 휘둘려 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선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중심'이다./vbkim11@metroseoul.co.kr

'닥공' 시대에 닥친 재건축부담금



기자 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반포현대 조합에 준공 5년 만에 179억원짜리 통지서가 왔다. 서초구가 지난 9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라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다. 조합원 8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꼴이다. 최종 부담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새집에 돌아와 계속 사는 조합원에게는 이제 어디서 목돈을 마련할지가 현실적인 문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사업 기간에 늘어난 주택가액에서 공사비 등 개발비용과 같은 기간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빼고 초과이익을 계산한다.

반포현대가 2021년 7월 준공한 뒤에도 주변 집값은 큰 폭으로 움직였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5년 12월 넷째 주까지 그해에만 13.79% 올랐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지역 시세는 이렇게 움직인다.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을 따질 때 사업 기간에 시장을 따라 오른 몫을 따로 빼는 이유다.

재건축 조합들이 문제 삼는 건 그 몫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산정 지표가 사업 기간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올랐을 집값까지 초과이익에 섞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식을 손질해도 납부 시점의 문제는 남는다. 집값이 오른 시점과 그 차익이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은 다르다. 현행법은 부과 종료 시점에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쉰아홉에도, 예순에도 집을 팔지 않으면 오른 집값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재초환을 유지한다면 부담 수준을 대폭 낮추고, 한 채를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 조합원이 재건축 뒤에도 계속 거주한다면 60세 미만이라도 집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도심에 더 많은 집을 지으라고 한다. 그런데 낡은 집을 헐고 새집에 돌아와 살 사람에게는 공사비를 치른 뒤, 집을 팔기도 전에 부담금으로 또 목돈을 요구한다.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정작 주민이 재건축에 나설 이유부터 줄이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lhj@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1일 (음 10월 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세요. **60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72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세요. **84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소 **49년생** 재물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61년생**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73년생**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됩니다. **85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험합니다. **62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74년생**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86년생** 음식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토끼 **51년생**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심하세요. **63년생** 도덕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75년생** 어려운 상황이니 마음을 편히 해야 이롭습니다. **87년생** 난폭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용 **52년생** 귀하가 최고 입니다. **64년생** 너무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76년생**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88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뱀 **53년생** 큰 꿈은 포기함이 좋을 듯 합니다. **65년생**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77년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89년생** 주위의 얕은 말을 듣고 마음을 꺾이지 마세요.

말 **54년생** 멸시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66년생** 당신의 소질을 보여주세요. **78년생** 모든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볼 때입니다. **90년생** 숨겨 놓은 기술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양 **55년생** 평탄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7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9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91년생** 지금 현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 **56년생** 투기 사업에 손대지 말고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68년생** 부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80년생** 북방향이 길합니다. **9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닭 **57년생** 경거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69년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81년생** 사소한 다른 일이 생깁니다. **93년생**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개 **58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0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8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94년생** 평소 관심 있는 이성에게 데이트신청을 받게 됩니다.

돼지 **59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1년생** 노력의 대가가 따르는 하루일 것입니다. **83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5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가난도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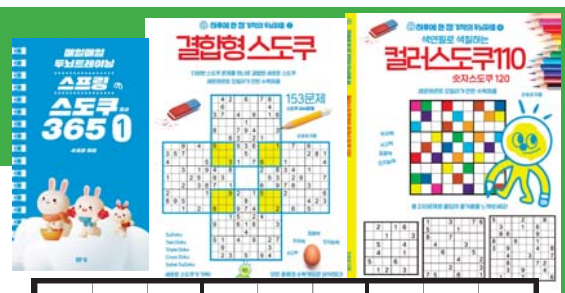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며 부자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부러워만 할 뿐이다. 정작 부자들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은 도외시한다. 심하게 말하자면 마치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역학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자사주를 타고나는 것도 무시는 못하지만 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습관이 있는데 정작 그들의 행동양식이나 사고는 간과하는 것이다. 재성(財性)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재성을 끌어당길 수도 있음을 무시하고 그냥 운으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우선, 부자들은 집 상태가 깔끔하고 청결하다. 특히 그 집의 첫인상인 현관이 환한 느낌을 준다. 신발이나 택배 물건으로 현관이 어지럽지 않으며 통로에 막힘이 없다. 여기저기 틈새에 물건을 쑤셔 넣은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부자들은 대체로 큰 집을 소유하므로 수납공간이 넉넉하여 지저분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는 않다.

언젠가는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쟁여두는 습관은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차단한다고 풍수적으로는 그리 보고 있다. 부자들은 또한 집에 고장이 난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다. 고쳐서 쓸지, 아니면 버릴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다. 이 말을 반대로 가난한 집과 치환해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 특히 부엌이나 식탁에 약봉지나 여러 물건이 정돈되지 않은 채 어지러이 놓여 있어서 눈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정신이 없어 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진다. 재물의 신도 마찬가지다. 원래 신장님들은 지저분하고 비린내 나는 것을 몹시 저어하는데 사람의 눈에도 어지러운데 하물며 화엄성중님들은 어떠하겠는가? 그 집에 조금도 거하기 싫어지는 것이니 어찌 행운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공간을 청결히 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3
	8	9			6		2	
			5		2		9	
9	6	8				3		
		2				6	1	5
	1		7		8			
	4		6			2	5	
3			4					7

4				9	1		6	2
3	9				6		5	
					5			
2	7	1						
8								1
						3	2	4
			9					
	4		5				9	6
1	6		4	8				5

할인도서

7	8	1	5	2	4	6	9	3
9	5	2	1	3	6	7	4	8
6	3	4	8	9	7	5	1	2
5	1	6	4	7	9	8	3	2
8	7	9	3	6	2	4	5	1
4	9	8	6	1	5	3	2	7
2	6	7	9	5	1	8	4	3
3	4	5	2	8	3	9	7	6
1	2	3	7	4	8	9	6	5

1	6	9	4	8	7	2	3	5
7	4	3	5	1	2	8	9	6
5	2	8	9	6	3	4	1	7
9	5	6	1	7	8	3	2	4
8	3	4	2	5	9	6	7	1
2	7	1	6	3	4	5	8	9
6	1	7	3	2	5	9	4	8
3	9	2	7	4	6	1	5	8
4	8	5	1	9	3	7	6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2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학원 선행학습 금지 "공교육 정상화" vs "학습선택권 침해"

학원 선행 교습 금지 개정안 공방
입시경쟁 조장, 사교육비 부담 커져
선행·심화 기준 없어 혼란 가중화
고액과외 증가 등 격차 커질수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이른바 '학원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교육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습 수준에 따른 교육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선행과 심화 학습을 구분할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 9월 28일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생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하면 교육감이 6개월 이내에서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 규정을 새로 뒀다. 방과후학교는 고교 겨울방학 과정의 선행교육을 허용하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 범위를 광고에서 수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2014년 제정된 현행법은 학교의 선행교육과 교육과정을 벗어난 평가를 금지하지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만 규제한다.

◆선행 경쟁이 사교육비 키워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의 선행교육과 레벨테스트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이 입시 경쟁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행학습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전국 초중고 수학교육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수학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도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발표하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입시경쟁 조장 행위 등을 학원법상 금지·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학원가, 교육 선택권 침해 반발

학원업계는 정상적인 예습과 심화 학습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학원 교습을 금지·정지하는 핵심 조항의 삭제와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조영환 학원총연합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사교육을 억압하고, 학생이 배우고 싶은 내용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학 선행·심화 전문 학원 생각하는황소도 같은 날 반대 입장문을 내고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학원은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수학 선행·심화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원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선행학습의 판단 기준이다. 경기 고양시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수학처럼 개념이 이어지는 과목은 선행과 심화의 경계를 나누기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원 수업을 제한하더라도 개인과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액 과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사이의 교육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수능 국·수 변별력 유지, 영어 난도 조정"

입시업계, 올해 수능 전망·전략 제시
국어·수학 변별력 확보 기조 이어질 것
작년 '불수능' 영어 난도 조정 주목


지난달 20일 고3 수험생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에서 국어와 수학은 변별력을 확보하는 출제 기조가 유지되는 반면, 영어는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수능 영어가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어려웠고 올해 9월 모의평가는 1등급 비율이 크게 높아질 만큼 쉬웠던 만큼, 본 수능은 두 시험의 중간 수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국어는 2023학년도를 제외한 4개 학년도에서 변별력 있는 수준으로 출제됐다. 수학 역시 통합수능 도입 이후 5년 연속 변별력을 확보하는 출제 기조가 이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역시 국어와 수학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킬러문항 배제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낯선 유형이나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는 난이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이 전체의 3% 수준에 그치면서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올해 9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은 15.54%로 지난해 수능보다 12.43%포인트(p) 높아졌고, 6월 모평(4.13%)과 비교해도 크게 상승했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9월 모평 영어가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고, 본 수능은 9월 모평보다 상당히 어렵고 6월 모평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로학원도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9월 모평이 지나치게 쉬웠던 만큼 실제 수능에서 난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습 전략에서는 국어가 전체 시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지목된다. 임 대표는 "문항별 풀이 시간을 미리 정하고, 막히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수정 기자

차량·식사비 등 지원… 학교소풍 부담 던다

서울시교육청, 체험프로그램 운영
3.3억 투입… 70개교 3850명 모집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급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차원에서 버스를 빌리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은 연말까지 '2026 학급소풍DAY'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원으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3억3300만원을 투입한다. 학교에서 교육원까지 왕복하는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한강일부 활동은 점심도 지원한다. 참가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 학부모의 비용 부담도 줄였다.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축령산본원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 대성리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한강수상안전교육장 등 5곳에서 진행한다.

축령산본원교육원에서는 에코어드벤처와 피크닉 오리엔티어링(지도를 보며 정해진 지점을 찾아가는 활동)을, 대성리교육원에서는 야외 마음열기학급활동과 암벽활동·양궁·뉴스포츠 등을 진행한다. 퇴촌야영교육원은 숲속 모험시설과 생태 지도를 활용한 활동을 마련했다.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세계시민교육과 생활영어를 배우고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한강수상안전교육장에서는 수상안전 이론과 실습, 장미공원 연계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진행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교육원에는 간호인력과 이송 차량을 배치한다. 학교와 인솔교사가 준수해야 할 안전 절차도 별도로 안내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교육재정 필요성 홍보 나서

교부금 개편 논의에 배움·안전 강조
방송광고·지하철 등 전방위 홍보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맞춰 시민 대상 홍보에 나선다.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과 시설 개선, 학생 지원 사업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방송광고와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보도전문채널에는 15초 영상광고를 내보내고, 서울지하철 1~9호선 주요 25개 역 스크린도어에도 광고를 싣는다.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에는 숏폼과 카드뉴스를 올린다. 광고 문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지켜져야 합니다"다.

이는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개편하려는 데 따른 대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각 부서가 요구한 9657억원은 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도 알린다. 현행 연동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거나 줄면 국가와 교육계가 이를 조정하는 완충 장치를 두자는 내용이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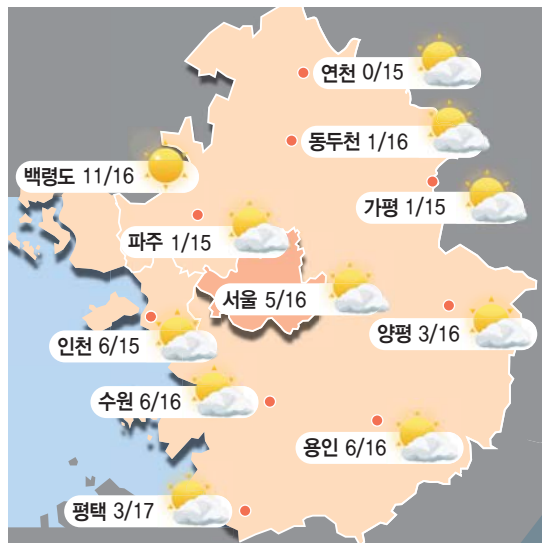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7 | 해짐 / 17:25

11월
11일 (水)
음력 : 10월 3일

수도권 날씨
5 ~ 16℃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이란 재공격 시 5배 더 강력…걸프국은 현상 유지 선호"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내각 모든 장관들에게 사퇴서 제출 요구 /사진 뉴시스

▲젠슨황, 불륜 사전 대비했나…"1년 전부터 '성추문 대응 홍보사' 고용"
▲10월 中 수출 35.2% 급증…"누적 무역흑자 1조 달러 돌파"

▲일본 AI 유니콘 사카나AI, 내년 가을 도쿄·나스닥 상장 추진
▲한·일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 공동연구 협력 강화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6032호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주류업계
소주·맥주
경계 허문다
L1

Life

케이캡·자큐보
커지는
위산억제제 시장
L2



철강 넘어 핵심자원으로… 장인화 '트리플 코어' 광양서 시동

르포

포스코 광양 클러스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트리플 코어(TripleCore)' 전략이 광양을 중심으로 실체화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저탄소 철강 생산체계 구축과 리튬·희귀가스·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확충을 통해 철강 중심의 체질을 개편, 종합 자원 공급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최동용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실장은 지난 2일 광양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산업 안보의 핵심은 자원"이라며 "기존 사업에 핵심광물과 에너지를 연계해 국가 산업용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콘스틸' 전기로 준공…저탄소 철강 체제 전환

광양제철소 전기로 공장에서는 무인 크레인이 철스크랩을 컨베이어에 올렸다.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한 스크랩은 전기로 측면으로 연속 투입됐다. '콘스틸(Consteel)' 공정이다.

고명국 광양제철소 전기로 공장 리더는 "일반 전기로와 달리 스크랩을 측면에서 연속 투입한다"며 "1200도의 배기가스로 스크랩을 예열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준공한 전기로는 연산 250만t 규모로, 단일 설비 기준 국내 최대다. 포스코는 전기로 용강과 고로 용선을 혼합하는 합탕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강판 등 저탄소 고급강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튬 제련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

인근 율촌산업단지에는 리튬 제련과 양극재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이 집적돼 있다.

연간 수산화리튬 생산능력이 4만3000t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호주산 스포듀민 정광에서 리튬을 추출한다. 손홍록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부장은 "커피를 우려내듯 광석 속 리튬을 용액으로 추출한다"고 설명했다.

추출한 리튬은 후속 공정을 거쳐 수산화리튬으로 탈바꿈한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전기투석 기술과 가성소다를 활용한 상용 화학공정이 각각 적용된다. 손 부장은 "두 공정의 제품 품질은 동일하지만 전력비와 부원료 비용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은 연산 9만t 규모로, 원료 혼합부터 소성·이송·포장까지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다. 정재용 포스코퓨처엠 1공장장은 소성 공정에서 원료 투입량과 적재 상태를 정밀하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품질 분석실에서는 엑스선 회절분석(XRD) 장비와 전자현미경 등으로 제품을 검사한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담당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은 연간 1만2000t의 블랙매스를 처리해 니켈·코발트·리튬 등을 회수한다. 송규영 공장장은 "침출 공정에서 유가금속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공장 수익성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고온·고압의 가압침출 설비로 잔여 금속을 추가 회수하며, 회수한 금속은 다시 양극재 원료로 활용된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염수 기반 리튬 생산시설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석 제련부터 양극재 제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희귀가스 국산화…LNG 저장능력 133만kl로 확대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들어선 포스코에어솔루션 공장은 제철소 산소공장에서 공급받은 원료가스를 분리·정제해 제논·크립톤·네온·헬륨 등 반도체용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한다.

공장에는 원료가스 저장탱크와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정제설비가 들어서 있다. 제논과 크립톤, 네온과 헬륨 등은 각 가스의 끓는점 차이를 활용해 분리·정제한다.

오영웅 포스코에어솔루션 경영지원그룹장은 "생산한 제품이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하는지 전수 분석한 뒤 출하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만큼 미량의 불순물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6월 준공한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13만 노멀입방미터(Nm³)다.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용 희귀가스 수요의 약 52%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 LNG터미널에서는 LNG 운반선에서 하역한 LNG를 하역암과 배관을 통해 저장탱크로 이송한다.

서기식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 LNG터미널 반장은 "LNG는 영하 162도의 극저온 상태여서 설비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비를 단계적으로 냉각하는 과정 등을 포함해 전체 하역에는 약 30시간이 걸리며, 본격적인 LNG 이송 시간은 약 10시간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LNG 저장·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제2터미널을 준공해 LNG 저장능력을 기존 93만kl에서 133만kl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만kl급 저장탱크 2기가 추가된다. 저장탱크에는 포스코의 고망간강이 적용됐으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운영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가스전 개발부터 LNG 도입·트레이딩·저장·발전으로 이어지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광양(전남광주)=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광양시 포스코그룹 '트리플코어' 전략 클러스터

산업자원 : 철강 ····· 광양제철소 전기로



에너지자원 : LNG ····· 포스코인터네셔널 광양 LNG 터미널





전략자원 : 양극재 ·····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광양공장

전략자원: 리사이클링 … 포스코HY클린메탈

전략자원: 희귀가스 ····· 포스코에어솔루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메트로 한줄뉴스



▲태권도 北 등재 파장 확산…유산청, 이번엔 '민간 탓'?
▲'KS 우승' 삼성, '시즌 1위' KT보다 많은 PS 배당금 받을 듯…최대 50억원 /사진 뉴시스
▲19세 브라운, PGA WWT 챔피언십 정상…역대 4번째 최연소 우승
▲K-팝 4대 기획사 '한 지붕'…'패노메논' 법인 공식 출범
▲'치유의 터전, 강원'…청와대 사랑채에서 '섬·들·산 솟아오르다' 특별전
▲문체부 "문학시설 상주하며 지역 활동할 작가 모집"